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 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

차문화 2022 겨울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2 Vol. 148

겨울

茶文化



통권 148호 (사)한국차문화협회

차는 자연을 닮은 그릇이었다



임억령(林億齡, 1496~1568)

산에선 꽃에 앉아 꽃을 미인으로 삼고 들에선 풀에 앉아 풀을 담요로 삼네.
골짜기 머니 서늘한 바람 들어오고 구름 사라지니 따뜻한 해 아름답네.
숲속의 새소리엔 시로 답하고 어린 중을 시켜 차를 달이네.
악기 소리 없다고 말하지 말게나, 바람의 거문고가 태고의 음악을 들려주네.

석천시집 권3에 실린 '들에서 차를 마시며(野酌)'의 전문이다. 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화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자연이 주는 아주 작은 것도 위안이 되어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건만, 자꾸만 욕심을 내고 더 가지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추 삼은 시이다. 나이 68세에 은퇴하여 삶을 유유자적하는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시이다. 이와 겹을 같이하는 시로 '시냇가 정자라는 시도 음미해 보자.

가을 들어 시냇물 맑아져 어지러운 물 사이로 잔잔히 흐르네.
길어 봤자 댄 데 쓸 곳 없어 동자가 용단차를 끓이네.

용단차는 중국 송나라 때 궁중에 바치던 떡차(단차)를 말한다. 용 무늬를 새기면 용단차라고 하고, 봉황 무늬를 새기면 봉단차라고 불렀다. 용과 봉황을 합쳐서 용봉단차라고 불렀다. 조선 중기 중국에서 차를 수입해서 마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❷

[표지 이야기]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혀있다. 모든 허물을 덮고 있는 하얀 눈을 보면서 그의 넉넉한 품성을 알 것 같다. 겨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휴식과 함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한다.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소식지

2022년 겨울호 (통권 148호) | 발행·편집인 최소연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편집부장 고만송
040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F. 02) 719-7815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茶文化

2022 Vol. 148 겨울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차에는 인류 보편적인 지혜와 공동체적인 선이 있습니다
- 006 특집 1 차의 날 기념 및 전국 차인큰잔치-차음식 경연대회
- 028 특집 2 2022년도 정기전송 시연
- 034 특집 3 대학원 21기 개강식
- 038 특집 4 임원 교육 및 워크숍
- 042 협회 소식 | 명예이사장님 성모 / 무형문화재 대축제 가루차 시연
9월 정기총회 / 대학원 제21기 교육생 인성예절지도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50 고전에 길을 묻다 | 당시 삼백수
- 054 선조의 품격 | 겨울, 감사의 차
- 058 건강한 삶 | 노로바이러스
- 060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72 마음을 채우는 음식 - 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 대상 수상작

茶情茶感 • 찾았이 맺어준 인연

- 073 지부사랑방
경남지부 / 광주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부산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순천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 100 2022년 12월 자격검정 시행 공고
- 101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 102 우송료 명단

차에는 인류 보편적인 지혜와 공동체적인 선이 있습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적인 불안과 긴장 속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저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협회 회원 간의 단합과 화합이 돋보인 모범적인 한해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제21기 차문화대학원 개강식을 했고, 10월에는 제23회 전국 인설차문화전-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와 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차음식 경연대회, 11월에는 규방다례 정기전송 공연 및 임원 보수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회원 모두가 배려하고 숭선수범하며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차는 나 자신을 만나게 하는 일상이자, 타인과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다도(茶道)니, 다선(茶禪)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차가 존재하고, 그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로 인해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차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차문화 역시 규모가 커지고 발달합니다.

요즘에는 차를 중심으로 문화를 이끄는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차를 필두로 이를 널리 퍼트리기에는 아직도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채우고 보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부와 노력과 아이디어를 모아 한국 차의 우수함을 강점으로 수준 높은 차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차인들이 가진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차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과거의 것을 무조건 답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차문화 속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 보편적인 지혜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적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차를 사랑하기만 하는 차인이 아니라, 차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가진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올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의 차문화를 사랑하고 차문화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문화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역량과 혜안을 가지고, 눈앞의 이득이나 허례허식에 빠지지 않는 마음이 올바른 차인,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차문화의 리더로서 자부심을 가진 차인이 되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길 바라며, 희망과 사랑을 가득 담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겨울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전국 차인들 인천에 모이다 단풍 사이로 차향이 그윽하게 퍼지고, 차인과 일반인이 한몸이 되다

제23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 시상식과 제42회 차의 날 기념 및 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한국차문화협회와 규방다례보존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300만 인천시민과 전국 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문화 축제를 즐겼다.



식전행사 - 현대 시연



식전행사 - 선비다례 시연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 도호부관아(재현물)에서 (사)한국차문화협회와 (사)규방다례보존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가천길재단, 가천대학교, 경인일보사가 후원하고, 한국제다가 협찬한 제42회 차의 날 기념 제33회 전국 차인 큰잔치가 화려하게 열렸다.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차음식 접수를 비롯하여 내빈 접수, 회원 접수가 진행되었다. 차음식 접수와 내빈 접수는 인천지부 회원들이 맡았고, 내빈 찾자리는 서울제2지부, 행사 진행은 서울제1지부 회원들이 맡아 진행했다.

올해 33회째가 되는 전국 차인큰잔치는 우리 전통 차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재정립하여 널리 알리고 보존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의 차문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교토지부를 비롯하여 전국 27개 지부와 인천시민 등이 참석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차문화 축제였다. 식전 행사로 가천대학교 학생과 서울제2지부 전문사범이 함께 한 선비다례 시연은 보는 사람들에게 선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선비다례는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의 근본을 담아내는 것으로 절도와 멋스러움이 특징이다.

선비다례 시연 후 본 행사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선고차인에 대한 묵념, 선고차인 현대례, 내빈 소개, 인사말, 축사, 협회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애국가 제창은 협회 강정자 부회장의 지휘로 진행



최소연 이사장 인사말

되었다. 이어 선고차인 헌다례는 강희옥 이수자, 박혜란 이수자, 김구환 전문사범이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과 선배 차인에게 헌다를 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 유서 깊은 인천도호부에서 인설차문화전과 차의 날 기념 및 전국 차인큰잔치를 개최하게 되어 무엇보다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설차문화전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인 ‘차(茶) 예절’을 알리고 차세대 차인(茶人)을 육성하기 위한 대회이며, 차의 날 기념 및 차인큰잔치는 차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중한 차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차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생활문화이자 정신문화의 꽃



허식 인천시 시의회의장 축사



최은영 여사 축사



김천주 이사장 축사



윤관석 의원 축사



강정자 부회장 지휘



입니다. 차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 주고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심신을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차는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도구이자 갈등을 해소하게 만드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한 잔의 차에는 고단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여유가 담겨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문화는 21세기의 주목받는 문화가 되었으며,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차 한 잔을 마시며, 한 걸음 물러나 나를 바라보는 사색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음식 경연대회는 참가한 회원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우리 차를 주제로 한 다양한 웰빙 음식은 차음식이 나아갈 새로운 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노력과 수고에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문화 축제는 우리나라 차문화가 세계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이자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은 “오늘날 스타벅스 같은 커피 판매장이 나날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차문화협회가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 문화유산이 강해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차문화협회가 글로벌한 시야를 갖고,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단비 같은 축제가 인천에서 열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300만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이 물든 인천도호부에 향기로



차음식 커팅식

운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장인 유정복 시장을 대신하여 최은영 여사님은 “우리 전통 차문화는 자연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선조들의 소박한 예절과 멋, 그리고 여유가 스며든 소중한 전통문화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잔의 차를 통해 향기와 맛뿐만 아니라 심신을 가꾸고 인생을 음미하며 그 속에 내포된 여유를 즐겼다”라고 말하며 전통문화의 확산 및 계승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은 “우리 전통문화를 고집하고, 맥을 잇기 위해 끊임없이 행사를 이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벅찬 일인



지 잘 알고 있기에 본 행사가 더욱 뜻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모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가고 함께 차 향기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차음식경연대회 커팅식이 있었다. 커팅식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최은영 여사,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국회의원 윤관석, 가천대 부총장 최미리, 가천길병원장 간호본부장 이금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외 내외 귀빈과 협회 부회장단이 함께했다. 차음식 경연대회는 전국에서 접수한 300여 점에서 예선을 통과한 차음식 50여 점이 전시되었다. 우리 차를 주재료로 한 차음식 경연대회는 차음식의 산실이 되고 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가루차 시연



생활다례 시연



차음식 심사위원으로는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과 김소림 총장, 최은영 여사를 비롯하여 관람객들의 설문을 종합하여 결정했다. 차음식 경연대회와 함께 본부석에서는 서울제1지부 학생들의 생활다례 시연과 인천지부의 가루차 시연, 이수자들의 규방다례 시연이 열려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산다는 김순자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차문화를 접하게 되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해서 모처럼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도호부 곳곳에 설치된 들차회는 강원지부, 광주지부, 인천지부,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부산지부, 충북지부에서 운영했다.



규방다례 시연





강원지부



광주지부



경남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부산지부



서울제2지부



인천지부



충북지부



서울제1지부



순천지부



전남지부

차우림 체험은 녹차(전북지부), 황차(대구경북제1지부), 가루차(경남지부), 홍차(순천지부), 청태전(전남지부) 등 5가지 우리 차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어,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설차 심의 모습



전통문화체험 부스에서는 연 만들기, 향낭 주머니, 매듭 노리개, 제다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23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 시상식이 오후 4시 본부 행사장에서 열렸다.

지난 9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고, 9월 29일(목) - 유치부, 초등부 심사, 10월 6일(목) - 중, 고등부 심사, 10월 7일(금) - 대학부 심사를 협회 교육장에서 협회 임원진이 심사했다.

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인설차 수상자

인설차 시상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



최우수상(인천광역시 시장상)



최우수상(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우수상(가천대학교 총장상)



최우수상(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최우수상(가천대학교 총장상)



최우수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특집 1 차의 날 기념 및 전국 차인근잔치-차음식 경연대회



최우수상(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최우수상(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우수상(한국청소년연맹 총재상)



우수상(경인일보 사장상)



우수상(가천박물관장상)



우수상(가천대 길병원장상)



인설예절상



장려상(가천문화상)

제23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 수상자 명단

대학부 (수상자 총 23명)				
번호	수상명	성명	학교명	비고
1	(대상)문체부장관상	이 * 용	가천대학교 2학년	
2	(최우수상)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조 * 날	가천대학교 3학년	
3	(최우수상)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조 * 현	가천대학교 2학년	
4	(최우수상)가천대학교 총장상	남 * 현	가천대학교 4학년	
5	(최우수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이 * 중	가천대학교 2학년	
6	(최우수상)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김 * 성	가천대학교 3학년	
7	(최우수상)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김 * 우	가천대학교 4학년	
8	(우수상)한국청소년연맹 총재상	이 * 은	가천대학교 4학년	
9	(우수상)가천대학교 총장상	안 * 현	가천대학교 4학년	
10	(우수상)경인일보 사장상	이 * 은	가천대학교 2학년	
11	(우수상)가천박물관장상	권 * 연	가천대학교 1학년	
12	(우수상)가천대 길병원장상	홍 * 준	가천대학교 2학년	
13	(장려상)가천문화상	여 * 윤	가천대학교 3학년	
14	(장려상)가천문화상	김 * 영	가천대학교 2학년	
15	(장려상)가천문화상	김 * 원	가천대학교 1학년	
16	(장려상)가천문화상	오 * 은	가천대학교 2학년	
17	(장려상)가천문화상	김 * 별	전주대학교 1학년	
18	인설예절상	이 * 인	한국폴리텍대학1학년	
19	인설예절상	송 * 진	한양사이버대학3학년	
20	인설예절상	송 * 건	한양사이버대학2학년	
21	인설예절상	박 * 희	청암대학교 3학년	
22	인설예절상	서 * 민	서울신학대 4학년	
23	인설예절상	장 * 민	강원대학교 4학년	

고등부 (수상자 총 13명)				
번호	수상명	성명	학교명	비고
1	(최우수상)인천광역시 교육감상	박 * 원	삼산고 1학년	
2	(최우수상)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임 * 옥	하늘고 2학년	
3	(우수상)한국청소년연맹 총재상	김 * 언	하늘고 2학년	
4	(우수상)가천대학교 총장상	김 * 환	하늘고 2학년	
5	(우수상)경인일보 사장상	김 * 준	삼산고 1학년	
6	(우수상)가천박물관장상	임 * 환	하늘고 2학년	
7	(우수상)가천대길병원장상	전 * 국	하늘고 2학년	
8	(장려상)가천문화상	문 * 서	하늘고 2학년	
9	(장려상)가천문화상	이 * 원	하늘고 2학년	
10	인설예절상	박 * 흥	ICS국제학교 11학년	
11	인설예절상	박 * 수	ICS국제학교 9학년	
12	인설예절상	이 * 준	하늘고 2학년	
13	인설예절상	유 * 민	하늘고 2학년	

특집 1 차의 날 기념 및 전국 차인큰잔치-차음식 경연대회

중등부 (수상자 총 19명)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1	(최우수상)인천광역시장상	김 * 정	봉영여중 3학년	
2	(최우수상)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나 * 희	고척중 2학년	
3	(최우수상)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오 * 성	과천문원중 3학년	
4	(최우수상)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임 * 준	목일중 1학년	
5	(장려상)가천문화상	나 * 아	나주반남중 1학년	
6	(장려상)가천문화상	이 * 아	나주반남중 1학년	
7	(장려상)가천문화상	김 * 유	나주반남중 1학년	
8	인설예절상	손 * 경	나주반남중 2학년	
9	인설예절상	김 * 원	나주반남중 1학년	
10	인설예절상	박 * 미	명현중 1학년	
11	인설예절상	안 * 우	나주반남중 1학년	
12	인설예절상	김 * 성	명현중 1학년	
13	인설예절상	이 * 온	용정중 1학년	
14	인설예절상	이 * 옥	용정중 1학년	
15	인설예절상	김 * 림	명현중 1학년	
16	인설예절상	이 * 민	용정중 1학년	
17	인설예절상	김 * 정	삼진중 1학년	
18	인설예절상	김 * 효	용정중 1학년	
19	인설예절상	김 * 윤	삼진중 2학년	

초등부B (수상자 총 22명)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1	(최우수상)인천광역시장상	이 * 예	BranksomeHallAsia (브랭썸홀아시아)5학년	
2	(최우수상)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이 * 희	논곡초 4학년	
3	(최우수상)인천광역시 교육감상	나 * 우	은봉초 4학년	
4	(최우수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조 * 진	담양한재초 5학년	
5	(최우수상)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한 * 수	은봉초 5학년	
6	(최우수상)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김 * 하	덕의초 6학년	
7	(우수상)한국청소년연맹 총재상	나 * 혁	고산초 6학년	
8	(우수상)가천대학교 총장상	최 * 영	향림초 4학년	
9	(우수상)경인일보 사장상	백 * 은	법성포초 5학년	
10	(우수상)가천박물관장상	정 * 진	정각초 5학년	
11	(우수상)가천대길병원장상	이 * 연	서흥초 4학년	
12	(장려상)가천문화상	홍 * 주	곡성중앙초 6학년	
13	(장려상)가천문화상	정 * 울	서흥초 5학년	
14	(장려상)가천문화상	이 * 지	연화초 5학년	
15	(장려상)가천문화상	정 * 진	정각초 5학년	
16	(장려상)가천문화상	윤 * 영	곡성중앙초 5학년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17	인설예절상	오 * 미	곡성중앙초 4학년	
18	인설예절상	김 * 현	하북초 5학년	
19	인설예절상	권 * 별	곡성중앙초 6학년	
20	인설예절상	이 * 은	진동초 5학년	
21	인설예절상	전 * 빈	진동초 4학년	
22	인설예절상	최 * 윤	진동초 4학년	

유치부, 초등부A (수상자 총 29명)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1	(최우수상)인천광역시장상	박 * 빈	우석초 3학년	
2	(최우수상)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백 * 산	담양한재초 3학년	
3	(최우수상)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조 * 정	담양한재초 3학년	
4	(최우수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박 * 연	동명초 2학년	
5	(최우수상)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최 * 영	향림초 1학년	
6	(최우수상)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김 * 연	광주어린이집	
7	(우수상)한국청소년연맹 총재상	김 * 나	광주어린이집	
8	(우수상)가천대학교 총장상	이 * 희	인천화교중산유치원	
9	(우수상)경인일보 사장상	송 * 진	민락초 1학년	
10	(우수상)가천박물관장상	정 * 겸	남천초 2학년	
11	(우수상)가천대 길병원장상	강 * 지	청량초 2학년	
12	(장려상)가천문화상	권 * 민	조동초 3학년	
13	(장려상)가천문화상	설 * 엘	광주어린이집	
14	(장려상)가천문화상	안 * 흠	조동초 3학년	
15	(장려상)가천문화상	김 * 서	광주어린이집	
16	(장려상)가천문화상	나 * 원	조동초 3학년	
17	인설예절상	남 * 울	그림나라유치원	
18	인설예절상	이 * 연	광주어린이집	
19	인설예절상	이 * 원	조동초 3학년	
20	인설예절상	이 * 울	만월초 1학년	
21	인설예절상	손 * 은	조동초 3학년	
22	인설예절상	국 * 민	조동초 3학년	
23	인설예절상	김 * 후	연성초 2학년	
24	인설예절상	김 * 현	곡성중앙초 2학년	
25	인설예절상	이 * 아	연성초 1학년	
26	인설예절상	이 * 아	연성초 1학년	
27	인설예절상	이 * 서	연화초 3학년	
28	인설예절상	하 * 채	선학어린이집	
29	인설예절상	하 * 채	곡성중앙초 1학년	



차음식 시상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가작



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제33회 전국차인큰잔치 차음식 경연대회 수상자 명단

번호	수상명	지 부	성 명	차음식명
1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순천	이 * 자	풍경 속 다양한 정과들의 이야기
2	(최우수상)인천시장상	경남	전 * 순	차향에 물드는 오곡백과 전통다식
3	(최우수상)인천시의회의장상	대구경북1	김 * 희	깨강정
4	(최우수상)협회 이사장상	순천	이 * 진	차꽃술
5	(최우수상)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전남	이 * 희	녹차유부주머니 졸임/구절판/녹차영양술밥
6	(최우수상)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인천	김 * 옥	녹차 설기(단풍 놀이 가는 날)
7	(우수상)보성군수상	대구경북1	박 * 숙	녹차와 연근사랑
8	(우수상)하동군수상	서울제2	최 * 은	스윗볼, 떡수단, 꽃파운드케
9	(우수상)협회이사장상	전남	나 * 영	나를 위해 선물하는 가을 찻상차림 (개성주악,개성약과, 울란)
10	(우수상)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서울제2	문 * 남	녹차 케이크
11	(우수상)가천대학교 총장상	경남	박 * 미	정과
12	(우수상)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상	전북	강 * 임	초원 당근 케
13	(우수상)경인일보사장상	전남	이 * 희	친정 가는 길(가루차 꽃감단지)
14	(특별상)가천의대 길병원장상	순천	김 * 아	차를 머금은 젤리뽕
15	(특별상)가천의대 길병원장상	인천	이 * 동	땅콩다식
16	(특별상)가천의대 길병원장상	대구경북1	심 * 옥	사과한과
17	(특별상)한국제다상	순천	주 * 란	새롭게 탄생한 찻잎볶음
18	(특별상)한국제다상	순천	박 * 희	꽃밭에서
19	(특별상)한국제다상	경남	박 * 화	강정
20	(가작)협회이사장상	광주	박 * 미	데이츠피칸말이/토마토황차마리네이드
21	(가작)협회이사장상	전남	황 * 미	유유자적
22	(가작)협회이사장상	광주	이 * 금	죽로차 효소 고추장
23	(가작)협회이사장상	경남	이 * 영	양갱
24	(가작)협회이사장상	강원	김 * 숙	가을의 향연 녹차와 울란이 만나다.(차울란)
25	(장려상)협회이사장상	인천	조 * 아	녹차치즈 만들기, 보이차 치즈 만들기
26	(장려상)협회이사장상	전남	서 * 경	매난국죽 흑임자 다식
27	(장려상)협회이사장상	전남	박 * 희	가을속에 머금은 또 다른 시작(녹차 설기)
28	(장려상)협회이사장상	전북	박 * 희	말차 품은 단자/ 홍차에 물든 개성주악
29	(장려상)협회이사장상	전남	오 * 미	진사에 꽃이 핀 자록우 양갱 (자색고구마, 녹차, 우유)
30	(입선)협회이사장상	서울제2	류 * 영	가루차 푸딩
31	(입선)협회이사장상	서울제1	서 * 민	한가로운 오후
32	(입선)협회이사장상	서울제1	이 * 예	난 감자가 아니야 빵
33	(입선)협회이사장상	전북	소 * 미	가루녹차 티그레 (Matcha Tigre)

번호	수상명	지 부	성 명	차음식명
34	(입선)협회이사장상	서울제1	이 * 분	약밥케익
35	(입선)협회이사장상	서울제1	전 * 선	5색 율밤
36	(입선)협회이사장상	충북	정 * 영	녹차 밤경단
37	(입선)협회이사장상	충북	김 * 정	그린티 그레놀라
38	(입선)협회이사장상	충북	김 * 민	그린티 롤케이크
39	(입선)협회이사장상	전남	박 * 희	차꽃 앙금플라워 쿠키
40	(입선)협회이사장상	충북	음 * 진	가을을 담은 화과자
41	(입선)협회이사장상	서울제1	황 * 주	말차 스모어 바스크 치즈케이크
42	(입선)협회이사장상	충북	이 * 애	녹차 마들렌
43	(입선)협회이사장상	서울제2	박 * 옥	홍차수정과(녹차식혜)
44	(입선)협회이사장상	인천	차 * 숙	녹차 비빔밥(향으로한번 맛으로두번)
45	(입선)협회이사장상	광주	박 * 희	옥로다(茶) 누름초밥/은시 하이볼
46	(입선)협회이사장상	인천	이 * 희	녹차김밥, 녹차삼각김밥
47	(입선)협회이사장상	광주	노 * 련	녹차양갱
48	(입선)협회이사장상	충북	서 * 진	풍요
49	(입선)협회이사장상	광주	주 * 경	죽로홍차 조청(Bamboo dew black tea grain syrup)
50	(입선)협회이사장상	서울제2	허 * 진	녹차품은 증편

전국차인큰잔치 차음식 전시 작품



1. 대상



3. 최우수상



6. 최우수상



4. 최우수상



7. 우수상



2. 최우수상



5. 최우수상



8. 우수상



9. 우수상



10. 우수상



11. 우수상



12. 우수상



13. 우수상



14. 특별상



15. 특별상



16. 특별상



17. 특별상



18. 특별상



19. 특별상



20. 가작



21. 가작



22. 가작



23. 가작



24. 가작



25. 장려상



26. 장려상



27. 장려상



28. 장려상



29. 장려상



30. 입선



31. 입선



32. 입선



33. 입선



34. 입선



35. 입선



36. 입선



37. 입선



38. 입선



39. 입선



40. 입선



41. 입선



42. 입선



43. 입선



44. 입선



45. 입선



46. 입선



47. 입선



48. 입선



49. 입선



50. 입선

2022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

(사)규방다례보존회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4시까지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2022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이자 한국차문화협회, 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인 최소연 보유자의 지도로 펼쳐진 이 날 정기전승 시연에는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 규방다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기전승 시연에는 한국차문화대학 제21기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규방다례의 진수를 직접 경험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규방다례보존회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최소연 보유자(한국차문화협회, 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의 지도로 지난 11월 19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정기전승 시연을 가졌다.

박광옥 규방다례 전승교육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정기전승에는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 규방다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전승 시연을 위해 11월 18일부터 규방다례 이수자들이 참석하여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규방다례 이수자들이 대개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기전승 하루 전에 모두 모였다. 몸이 불편한 이수자들도 많았지만, 정기전승 시연을 위해 모두가 상경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론이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이수자들이지만, 세월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양이었다. 오랫동안 앉아 있기도 불편한 이수자들이 숙출하는가 하면, 잘 구부러지지 않는 허리를 굽히느라 연신 애를



박광옥 규방다례 전승교육사



김가영 이수자 규방다례 연혁 보고

졌다. 이수자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소연 보유자의 지도로 열심히 규방다례를 재현했다.

11월 19일 오후 2시 20분.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의 막이 열리면서 박광옥 전승교육사가 정기전승 시연을 알렸다. 이어서 김가영 이수자의 규방다례 연혁 보고가 있었다. 김가영 이수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돌아가신 조상께 제를 올리는 일에서부터 살아계신 어른들께 또는, 손님을 맞아 정중히 예를 차려 차를 대접하는 일을 다례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다례는 차 다루는 법과 관계되는 제반 다사법 및 이에 수반되는 예의범절과 마음가짐까지 포괄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방다례는 모두를 아우르는 행다 예절로 손님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인데,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가시는 손님 뒤가 안 보일 때까지 배웅하는 한국인의 고운 심성이 담겨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보존되어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생활다례

2022년 정기전승 첫 시연은 생활다례로 강정자 이수자의 해설과 유미현, 서명주, 김미숙 이수자가 시연했다. 생활다례는 일상다반사로 잎차, 가루차, 덩이차 등의 음다법을 말한다. 최소연 보유자는 시연하는 유미현, 서명주, 김미숙 이수자의 손동작, 몸동작 하나하나를 시연 전날 세심하게 수정해 주었다.

선비다례는 이림 이수자의 해설로 이성용, 조새날, 김연우 가천대 학생들의 시연이 있었다. 이성용, 조새날, 김연우 가천대 학생은 이번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다.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



규방다례



가루차 행다례는 김태임 이수자의 해설로 조영아, 최지원, 강희옥 이수자가 시연했다. 가루차 행다례는 일정한 규정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며, 다술로 다화를 활짝 꽃피우는 것이 특징으로 손님에게 정성껏 대접했다.

규방다례는 박광옥 전승교육사의 해설로 박혜란, 연규남, 조정미, 이광용 이수자와 최성미 전수장학생이 시연했다. 규방다례는 부녀자들이 방에서 차를 다루는 법과 다반사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인들이 친척이나 이웃을 초청해서 차를 나누며 우애를 다지고 몸가짐을 익힐 수 있는 음다 풍속을 계승한 것으로 규방 문화의 중심이었다.



규방다례보존회 최소연 보유자는 마무리 강평에서 “지난 1년 동안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이수자로 활동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이틀 동안 시연을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모두 모여서 연습하고 전승 계승하려는 그 노력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연을 해 주신 이수자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시연 장면에 대해 지적할 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타गत하겠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시연을 해 주신, 여러 이수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강평을 해 주었다.

깊어가는 가을, 낙엽이 지는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2022년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의 막을 내렸다. ☯

21세기 문화콘텐츠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한국차문화대학원 개강식이 지난 9월 17일 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열렸던 차문화대학원 개강식은 모처럼 대면으로 열리게 되어 활기찬 개강식이 되었다.



지난 9월 17일 협회 교육장에서 제21기 차문화대학원 개강식이 열렸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관계로 이번 개강식은 대면으로 치러졌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정자 부회장, 박광옥 부회장, 김태임 아산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이석예 서울제1지부장, 이막동 이사, 이기분 이사, 강희옥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국민의례와 선고차인에 대한 묵념에 이어 최소연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차는 사람과 사람을,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차문화는 이제 글로벌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차문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이때 차문화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과 경제력이 세계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라

며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에 맞는 지도자가 되어 주길 최소연 이사장은 강조했다. 이어서 제21기 대학원생들은 각자 자신의 입학 동기와 각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입학식에 참석한 제21기 원생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PR하여 협회 임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제21기 대학원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반장에 인천지부 김희영, 부반장 광주지부 이인숙, 전남지부 이경희, 총무 인천지부 이윤희 회원이 선출되어 집행부를 구성했다.

인천지부 김희영 반장은 “제21기 대학원생 청일점으로서 회원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여러분의 노력에 흠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임원들과 의논하여 가장 멋진 대학원생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뽑아 주셨으니,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당선된 임원들은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에 인사를 드렸고,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총 25명이 등록한 이번 제21기 차문화대학원 신입생들은 그 어느 기수보다 활기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울 협회에 왔다는 신입생부터 차를 더욱 알고 싶다는 신입생까지 대학원 입학 동기는 모두가 달랐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 뜨거웠다.

입학식에 이어 대학원 첫 수업은 강정자 협회 부회장의 ‘인성 8덕목’으로 시작했다. 강정자 협회 부회장은 예, 배려, 협동, 존중, 책임, 소통, 정직, 효를 통해 8덕목과 차생활의 연관성에 대해 열띤 강의를 해 주었다. ☺



임원진



광주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서울제1지부



아산지부



인천지부



전남지부

2022년도 임원 교육 및 워크숍 통해 단합을 과시하다

1박 2일 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제시

협회는 지난 11월 18일 임원 보수교육 및 워크숍을 가졌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임원 보수교육은 최소연 이사장 이하 협회 임원진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임원 교육에서는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최소연 이사장은 “오래도록 진행되는 코로나19로 지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원님 이하 각 지부장의 배려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협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협회가 발전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임원 교육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협회의 행다법이 조금씩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철저한 연습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이번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 대회에 출품한 동영상을 보면서 행다법이 많이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임원님들이 철

저하게 배워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처럼 임원님들이 모두 모였으니 협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진행된 생활다례와 규방다례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이수자들에게 세심한 가르침으로 규방다례의 행다법이 변형되지 않도록 했다. 생활다례와 규방다례 시연을 하면서 임원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다례와 규방다례 교육을 마친 임원들은 가천박물관으로 견학하러 갔다. 가천박물관에서는 최원종 학예사로부터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번에 우리 협회 김가영 부회장님께서 가천박물관에 기증한 고려시대 도자기에 대한 설명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가영



부회장이 기증한 고려시대 도자기는 국내에 몇 안 되는 귀중한 자료로 가천박물관으로부터 ‘기증에 대한 감사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그 뜻을 소중하게 여겨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심효섭 가천박물관 부관장이 말했다.

가천박물관 견학 후 임원들은 인천 라마다호텔로 이동하여 최소연 이사장과 다담 시간을 가졌다. 아침 일찍부터 상경한 임원들은 하루 동안 강행군을 하면서 1일 차 교육을 마쳤다. ☺



협회 김가영 부회장이 기증한 고려청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명예이사장님께 성묘

차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지난 9월 8일 오전 11시 추석을 맞이하여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 성묘를 다녀왔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7주기가 되었다. 한국 차문화를 위해 평생 헌신한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추모하며, 그분이 이룩하고자 했던 뜻을 기억하는 자리였다.

아침 일찍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협회 차영민, 강순란, 박광옥 부회장과 서울제1지부 이석예 지부장, 조영아 인천지부장과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성묘를 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날씨가 부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가을 하늘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예이사장님께서 가르쳐준 배려와 중용의 정신으로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최소연 이사장과 최소리, 최미리 등 가족분들의 헌다례에 이어 차영민, 강순란, 박광옥 부회장의 헌다례, 지부장 헌다례, 임직원 헌다례 순으로 이어졌다.

태풍으로 인해 지방에 계신 협회 임원들의 참석이 어려워, 서울 근교의 임원만 참석한 자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정이 흐르는 성묘였다. 성묘를 마친 회원들은 명예이사장님이 바라보는 가운데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더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높은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

무형문화재 대축제에서 가루차 시연

인천시민들에게 규방다례의 진면목을 소개



지난 10월 1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사)재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총연회 주최 무형문화재 대축제가 화려하게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진 이 날 무형문화재 대축제는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24팀이 참여하여 공연 및 전시, 체험이 진행되었다.

무형문화재 대축제는 인천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즐기며 전통에 대한 향수, 지역에 대한 애향을 느끼고 다음 세대와 함께 전통예술향수를 누리는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아가는 축제이다. (사)한국차문화협회와 (사)규방다례보존회는 축제를 위해 가루차 시연을 선보였다. 가루차 시연에는 나레이션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비롯하여 조영아 이수자, 이광용 이수자, 최지원 이수자가 시연했다. 규방다례 보유자인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차영민 부



회장 등 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40분에 시연회를 했다. 약 20여 분간 진행된 가루차 시연은 우리 차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박광옥 전승교육사의 지도에 따라 진행된 이날 시연에서는 규방다례의 진면목을 많은 인천시민에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공연을 마친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비롯하여 조영아, 이광용, 최지원 이수자들을 격려했다.

무형문화재 대축제 후 최소연 이사장의 생일을 맞이하여, 협회 임원 및 이수자, 회원들이 작은 생일상을 차렸다. 무형문화재 근처의 작은 음식점에서 진행된 이날 생일에는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이사장님의 생일 케이크 커팅식과 생일 노래로 축하 자리를 마련해, 따뜻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무형문화재에서 가루차 시연을 한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비롯하여 이수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생일상까지 받고 보니 뭐라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단합된 모습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

다양한 안건 및 토론으로 정기총회 마무리

다음 정기총회를 기약하며 마쳐



지난 9월 20일 오전 11시 협회 교육장에서 9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각 지부 지부장, 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정기 이사회에는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어 토의되었다.

민달래 팀장의 성원 보고 및 개회와 국민의례, 6월 이사회 회의록, 이사장님 말씀, 안건 상정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조금씩 코로나가 풀려 이렇게 대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기저기 행사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협회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협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 상정 및 토의에서 제65기 지도사범 결과 보고, 7월 자격검정 결과 보고, 제59회 하계연수 졸업식 결과 보고, 제66기 지도사범 교육, 제21기 한국차문화대학원 개강,



제23회 전국 인설차문화전-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 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차음식 경연대회, 2022년 보수교육 계획, 행안부 공익사업 중간 결과 보고, 기타 사항 및 전달 사항으로 진행되었다. 안건마다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 중에서 제23회 전국 인설차문화전-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와 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차음식 경연대회가 중점적으로 토론되었다. 전국 인설차문화전 동영상 심의, 심사위원 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었다. 또한 차음식 경연대회 출품작에 관한 토론과 차우림 체험관과 찻자리에 대한 의견으로 정기이사회 회의장이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다채로운 의견과 원만한 조정을 통해 9월 정기이사회를 마감하고, 12월 정기이사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대학원 제21기 교육생 인성예절지도

최소연 보유자 외 박광옥 전승교육사 등 이수자 수업 참여



지난 11월 19일 한국차문화대학 제21기 교육생 인성예절지도 교육이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있었다. 최소연 협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박광옥 전승교육사 등 규방다례 이수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평절, 큰절, 상례절, 생활다례, 선비다례 교육이 있었다.

제21기 교육생들은 규방다례 보유자이신 최소연 이사장님이 직접 지도를 했다. 또한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비롯하여 규방다례 이수자인 조영아 이수자 등 20여 명이 교육생들과 1대 1맞춤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생들에게 열화같은 환영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직접 규방다례 보유자에게 지도를 받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을 많이 하게 되었다며, 직접 지도를 받아서 그런지 한결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말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진 수업에서 교육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최소연 보유자는 “다례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오늘 배우는 교육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연습해서 몸에 익혀야 합니다. 하루 잠깐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집에서나 각 지부에 내려가서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이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절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예는 효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것과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우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2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교육생들에게 규방다례에 대해 가르쳐주신 최소연 이사장의 열정과 박광옥 전승교육사의 찰랑찰랑한 목소리가 전수교육관을 모처럼 활기차게 만들었다. 최소연 이사장과 규방다례 이수자들이 함께한 제21기 대학원 인성예절지도 교육은 올해 마지막 수업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

동양 최고의 시집 『당시 삼백수(唐詩三百首)』

당시 삼백수만 읽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겨울 당시 삼백수로 시인이 되어 보자.

문학은 시대의 산물이자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보고이다. 그런 이유로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거쳤다. 문학 중에서 특히 시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장르이다.

문학에는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다. 연극 대본을 위한 희극, 19세기 자본주의 삶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장편소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시,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그리는 수필 등이 있다.

문학의 4가지 형태 중 시는 가장 오래된 장르이다. 그 옛날 서양 문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길가메시는 기원전 2800년 전에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양의 리그베다는 기원전 1200년 무렵에 작성된 것이고, 서경은 기원전 600년 전에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시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이어오는 가장 오래된 문학 장르이다.

이런 시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자권인 우리나라는 중국의 시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중에서 중국의 당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당시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삼백수(唐詩 三百首)

누구나 읊을 수 있는 동양의 고전

수나라를 이은 당나라(AD 618~907)는 289년간 유지되었던 왕조이다. 현대 중국인들에게 중국 역사상 가장 좋아하는 왕조 시기를 꼽으라 하면 대부분 한나라와 더불어 당나라 시기를 꼽을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영광스러운 과거로 인식되고 있다. 역대 중국 왕조 중 군사, 경제, 문화, 정복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역대 왕조 중 가장 활발한 대외 팽창정책과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혼란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 중국사에서도 손꼽히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당 태종 이세민과 당 현종 이용기가 있었으며, 심지어 당 태종과 위징의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군신 관계 중 하나라고 치부되고 있다.

『당시 삼백수』는 청조 건륭제 때 활약한 손수가 53세 때 직접 편찬한 당 시선집이다. 당시 손수는 53세였다. 군이 책의 제목에 ‘삼백수’를 단 것은 『시경』을 흉내 낸 것이다. 건륭 28년인 1763년에 부인 서난영과 함께 『당시 삼백수』를 편찬했다. 그는 이 책을 편찬할 때 심덕잠의 『당시별제』 및 왕사정의 『고시선』을 참고해 310수를 골라 뽑았다. 편찬 의도는 그가 쓴 『당시 삼백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삼백 수를 숙독하면 시를 읊지 못하는 사람도 시를 읊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시 삼백 수만 외우면 절로 시를 읊고 지을 수 있다.’라는 속담을 그대로 인용해 서명으로 삼은 것이다. 애초부터 학동의 학습을 목적으로 편찬된 데다가 수록된 시 역시 내용이 쉽고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듯싶다. 한편 장섭의 『당시 삼백수 주소』는 전고와 명물에 대한 주석은 물론 장구의 대의와 작법뿐만 아니라 작자의 소전까지 덧붙인 매우 상세한 주석서에 해당한다. 이후 10수가 추가된 그의 주소 본이 세상에 가장 널리 유포된 『당시 삼백수』 판본이 되었다.



당나라 시인 77명, 320수 수록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당시 삼백수』는 장섭의 ‘주소 본’ 또는 진완준의 ‘보주 본’을 원본으로 삼은 두 가지 판본의 주석서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당나라 시인 77명이 수록되었고, 실제로는 320수가 실려 있는 당시 300수는 일반 서민들에게 좋은 교재였다. 당나라 시인 77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왕유의 송별시를 살펴보자.

下馬飲君酒, 말에서 내려 그대에게 술을 권하며
問君何所之. 그대는 어디로 가실 건가 물으니
君言不得意, 그대가 말하기를 뜻을 얻지 못했으니
歸臥南山陲. 돌아가 남산 기슭에 누울 거라 하는구려.
但去莫復問, 더는 묻지 않을 테니 그냥 떠나가시구려.
白雲無盡時. 흰 구름이 끝없이 오락가락하겠구려.

산수 자연시로 유명한 시인 왕유는 송별시(送別詩)에서도 그 두각을 내었다. 왕유는 당(唐) 현종(玄宗) 개원(開元) 9년(721) 진사에 급제하여 태악승(太樂丞)을 맡게 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황제 앞에서만 추는 황사자무(黃獅子舞)를 사석(私席)에서 추게 한 죄로 제주사창참군(濟州司倉參軍)으로 좌천되었다. 얼마 후 벼슬을 버리고 장안(長安)으로 돌아가 남전(藍田)에 망천별서(浬川別墅)를 짓고 은거했는데 이때 선배 격인 맹호연을 만나게 되었다.

이 시는 왕유가 장안(長安)에서 맹호연(孟浩然)을 송별하며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이미 맹호연이 장안에서 「세밑에 남산으로 돌아와서(歲暮歸南山)」를 지었고, 또한 「왕유를 떠나며(留別王維)」라는 시가 있다. 이 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오언고시(五言古詩)의 형식을 이용하여 이별의 아쉬움을 보다 심화시켰으며 아울러 문답체를 사용하여 이별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제1~2구에서 시인은 술을 권하며 떠나는 이에게 행선지를 묻고 있으며, 제3~4구에서 떠나는 이가 ‘득의(得意)’ 하지 못하여 은거하려 떠난다고 답하고 있다. 떠나는 이의 대답에 시인은 한 마디 만류의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음 구절에서 다만 ‘더는 묻지 않을 테니 그냥 떠나가시구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은거를 결정하게 된 떠나는 이의 상황을 시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말한 ‘부득의(不得意)’ 함이 또한 자신의 상황이기도 함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은 ‘흰 구름이 끝없이 오락가락하겠구려’라는 말로 떠나는 이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의미 즉 떠나는 이에 대한 위로나 그에 대한 부러움,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상상이나 안타까움 등으로 읽혀 시의 외연을 확대해주고 있다.

이처럼 『당시 삼백수』는 쉽고, 누구나 읽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소재 또한 다양하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시를 통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비록 우리 선조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탐독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❶



겨울, 감사의 차

박숙희
한문교육학 박사,
협회 부회장,
충북지부장



겨울은 성큼 다가온다.

아직도 가을인 듯한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놀라 두꺼운 옷을 꺼내 입게 된다.

만물은 휴면의 시기로 들어가고 쓸쓸해진 가로수 한끝에서 봄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멀어 보인다.

물장사가 껏속으로 들어와 내 눈을 열었다

보아라!

까치가 빼만 남은 나뭇가지에서 울음을 운다

왜 이래?

서리가 덩달아 추녀 끝으로 눈물을 흘리는가

내야 반가웁기만 하다 오늘은 따스했구나

이상화(1901~1943) 님의 1926년 작품인 「겨울 마음」이다. 혹독한 추위는 미안한 듯 슬쩍 따스한 기운을 흘리기도 한다. 겨울은 꼭 춥지만은 않다.

고려의 선비들에게 차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속세의 풍진을 삭이며 자신을 연마하는 소재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걱정하는 매체로, 때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을 주는 인생의 벗으로 쓰였다.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시고(牧隱詩藁)』에 수록된 <상당군 한수의 초청으로 함께 집정대신을 뽑고 광암사비에 대한 이야기 후 두 수를 짓다(韓上黨邀 同謁執政 言光岩碑事 因賦 二首)>에는 말없이 노쇠해지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차가 그려지고 있다.

末路精神耗

中年齒髮衰

趨時疑滿腹

變志涕交頤

楊柳纔藏寺

莓苔欲澁碑

六年眞石火

國務政如絲

말년이라 기억력도 줄어들고

나이 먹으니 이도 머리털도 빠져버리네

때를 좇자니 의구심은 마음에 가득하고

뜻을 바꾸자니 눈물만 줄줄 흐르네

버들은 자라 절집을 숨길만 하고

이끼는 비석을 가득 덮었구나

육 년이 참으로 전광석화 같은데

나랏일은 어지럽게 얹히기만 하누나

國恩閑更重	나라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내가 중책을 맡았건만
家學病來衰	좁은 학문이나마 병든 이후로 더욱 쇠퇴해졌네
自愧文無體	문장에 격식 없음이 나 자신도 부끄러우니
人皆笑脫頤	남들은 모두 턱 빠지게 웃어대겠군
政堂工作篆	정당은 전액(篆額)을 잘 썼거니와
簽院謹書碑	첨원은 비문을 신중히 잘도 썼구먼
墨本披禪榻	붓으로 모사하여 선답 위에 펴놓으니
茶煙繞鬢絲	차물 끓이는 연기가 허연 귀밑털을 감도네

이색은 이제현의 문인으로 포은 정몽주, 도은 이숭인과 함께 여말삼은(麗末三隱)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14세(1341)에 성균관에 합격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고, 공민왕 4년(1354) 원나라 과거에 제이갑(第二甲)으로 뽑혔다. 공민왕 10년(1360)에는 홍건적의 난에 왕을 호종한 공으로 1등 공신에 봉해졌다.

각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추천받아 고시(考試)를 통해 등용하는 제도인 공거(貢舉)를 여러 차례 맡으면서 당시의 명사들이 거의 그의 손에 의하여 발탁되었다. 이런 여러 사정으로 고려 말 새로이 일어난 성리학이 이색에게서 크게 확장하여 조선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유교의 입장을 견지하여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여 1387년 서보통탑(西普通塔)의 탑기(塔記)를 짓는 등 성리학자이면서도 불교를 이해하였고 광암사비(光巖寺碑)를 세울 때 비문을 짓기도 하였다.

이 시의 배경이 된 광암사는 개성의 광암동에 있던 노국대장공주와 공민왕의 능침사찰(陵寢寺刹)이다. 공민왕 때 이 절에 광통보제선사(廣通普濟禪寺)라는 사액(賜額)을 내렸었고, 또 공민왕이 생전에 일찍이 이 절에 비석을 세우기 위해 미리 중국에서 구해 온 빗돌이 있었던바, 공민왕이 승하하자 이 절에 장사를 지내고, 우왕(禡王) 3년(1377)에 마침내 비를 세우게 되었다. 이색이 짓고 한수(韓脩)가 쓴 비문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어 고려말의 조각 기술을 엿볼 수 있다.

한수(韓脩)는 고려 후기 밀직제학, 동지밀직, 판후덕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우왕 때에 공민왕 시해에 관여한 한안(韓安)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일시 유배되었으며, 1378년 배소에서 돌아와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지고 수충찬화공신(輸忠贊化功臣)이 되었다. 시서(詩書)에 뛰어남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초서와 예서에 능해 당대의 명필로 이름이 났다.

생각해 보면 지난 육 년이 참으로 전광석화 같다. 덧없이 버들은 어느새 자라서 절집을 가리고 이끼는 빗돌 가득 덮였다. 공민왕은 현릉(玄陵)의 주인이 되고 자신은 건망증이 오고 치아와 머리도 빠져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길다면 긴 세월이 정작 더 좋아져야 할 국사(國事)는 실타래처럼 얽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나라가 바뀌어도 같은 백성과 관리이건만 때를 좇아니 의구심은 가득하고 뜻을 바꾸자니 눈물이 절로 줄줄 흐르니 못 백성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정당은 전액을 잘 썼고 첨원의 비문도 가히 명필이나 내 문장만은 몸 따라 쇠해져 격식이 없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것은 전액(篆額)은 당시 정당문학(政堂文學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종이품 벼슬)으로 있던 권중화(權仲和)가 썼고, 비문은 당시 첨서원사(簽書院事 고려시대 중추원의 정삼품 벼슬)였던, 이색과는 일찍부터 교분이 깊었던 한수(韓脩)가 썼으므로 한 말이다.

한수가 쓴 비문을 모사하여 참선 의자인 선답(禪榻)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노라니 감회가 새롭다. 국가의 은혜를 입어 바른 정치로 백성을 살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국가는 기울고 나이도 많아져 쇠약해지니 모든 일이 활기가 없다. 당당해야 나랏일도 바로잡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으련만. 나라를 다스림에 가장 먼저인 것이 백성의 안위이건만 정치적 상황은 뒤엎혀 풀리지 않는다.

차물을 끓여야 차를 마시듯 순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마음을 차 한 잔에 담아 본다. 그 추운 겨울에도 어느 날은 따사로운 날이 있건만..., 차향이 은근히 밀려온다. 고요하고 편안한 일상을 준다. 그 일상에 감사하며 차를 마신다. ☯

겨울철에도 더 조심해야 하는 노로바이러스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김경오 교수

바이러스는 DNA, RNA 바이러스 두 가지가 있다

바이러스는 DNA, RNA와 같은 유전물질인 핵산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인 캡시드(capsid)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는 최소 단위의 미생물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이다. 바이러스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스스로 생존과 번식을 할 수 있는 박테리아와 달리 숙주에 기생해야만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는 DNA와 RNA 중 어떤 핵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뉜다. DNA 바이러스에는 아데노바이러스, B형간염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등이 있고 RNA 바이러스에는 소아마비, 홍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다.

이 중 위장관에 작용하여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로타바이러스, 장내 바

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노로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Norwalk)에서 발생한 급성 위장염 환자의 대변에서 발견되어 노워크 바이러스(Norwalk virus)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노로바이러스(Noro virus)로 명명되어 불리고 있다.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하여도 감염성이 유지되고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하며 극소량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평균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과 같은 전신증상도 흔히 동반된다. 소아에서는 구토 증상이 더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히 발생한다.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장염이 흔하다

여름철에는 음식에 오염된 세균에 의한 세균성 장염이 흔하지만 겨울철에는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바이러스성 장염이 흔하다. 세균성 장염의 경우 90%는 식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음식물 관리만 잘해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성 장염은 식품으로 인한 감염은 10%도 채 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이루어지므로 예방이 쉽지 않다.

로타바이러스 장염의 경우 영유아나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주로 성인에서 발생하며 백신이 없어 예방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생선이나, 굴, 조개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거나 집단 배식을 하는 조리자가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감염자의 분변, 구토물, 침 등과 같은 분비물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 오염된 식품이나 식수를 섭취하였을 때 등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끓여서 섭취하면 바이러스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로바이러스가 비록 열에 강하지만 70도 이상에서는 5분, 100도에서는 1분이면 소멸하기 때문에 물이나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끓여서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어서 날이 추운 겨울철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상온에 두거나, 혹은 냉

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끓여서 섭취해야 한다.

전염성은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에 가장 강하고 회복 후 3일에서 2주까지도 전염할 수 있다. 증상은 대부분 2~3일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며 따로 항바이러스제 같은 치료제는 없다. 발열이나,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있으면 이를 조절해야 한다. 심하지 않은 탈수의 경우 수분의 경구 섭취로 조절이 가능하나 심한 탈수의 경우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공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영유아나 고령 환자의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설사한다고 무조건 금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흰죽과 같이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고 생수는 마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보리차 등을 끓인 후 식혀서 마시도록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회복 후에도 재감염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 감염 후 생기는 면역이 6주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고 바이러스의 종류도 150여 종으로 다양하고 변이 또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백신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은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코로나19 감염의 예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면 바이러스 감염의 상당 부분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❶

차와 천 아트는 제게 있어 인생공부랍니다

글_경남지부 64기 사범반 황동순



지난여름, 장마 기간에 찾아온 불볕더위와 눈이
부시게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날, 강력한 낙뢰와
함께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는 온데간데없이 사라
졌습니다. 때마침 친구의 방문에 날씨처럼 내 맘
도 맑게 개었습니다. 그날 친구가 들고 온 가방이
허전해 보여서 붓꽃 몇 송이 그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천 아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천 아트의
정식 명칭은 섬유공예 중 묘염이고 패브릭 아트라
고, 그래서 염색한다는 뜻입니다. 직물에 표현하
는 그림 아트로 여러 가지 직물 소재에 다양한 기
법을 사용하여 야생화나 식물 등을 그려 넣는 것
을 말합니다.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실생활에 활용



도가 높아 인테리어, 패션 소품 등에 접목할 수 있
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방을 열어 다른 분들과 천 아트 수
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사범님의 소개로 한국
차문화협회 경남지부에서 사범반 과정을 배우며
차를 더 좋아하고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이나 체험, 행사 등 사범반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즐겁고 좋습니다. 작은 찻잔 받침이
나 테이블 깔개 등 이쁜 꽃을 그릴 때면 더없이 행
복합니다.

차 공부와 천 아트는 저의 인생 공부가 되어 늘 배
우고 나누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2022년 경기공예창작공모전 우수상 수상

차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맛보다

글_서울제1지부 지도사범 박진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의 공예창작지원 공모전에
우리나라의 전통 느낌의 양단을 사용하여 현대적
인 실용성과 더불어 전통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만
든 미니 매듭 클러치백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모작품 수상을 위해 대중심사
를 참여해주신 한국차문화협회 서울1지부 임원분
들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
립니다. 또한 이렇게 크나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밀거름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제 스승님
이신 임순옥 침성장무형문화재이신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작에 대한 저의 꿈틀대는 욕망에 큰 용기를 주
신 임원분들과 사범님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뜨거
운 가슴과 삶의 열정으로 한길만으로 오로지 전진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에 작
은 성취감도 느끼며 더더욱 발전하는 조각보 공예
작가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
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미약하나마 저는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적 지속성을 실

현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규방문화는 규방
이라는 생활공간 속에서 여인들의 섬세한 미의식
의 표현을 통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예술적 감성
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한국차문화협회 서울1지부 회
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
든 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



‘또로록 또로록’ 다관에 떨어지는 물소리



글_서울제1지부 21기 강유리

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돌아서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못나 보이던지요. 가장 못마땅하고 화내고 싶었던 것은 정작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나도 한때는 누구누구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빛나던 때가 있었다며 못난 모습을 지우고 과거로 과거로의 나를 되돌아보는 길에 “茶”가 보였습니다.

20여 년 전 일하고 놀기에 바빴던 아가씨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사)한국차문화협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배우라 해서 배웠고 주시니까 근사한 자격증도 받으며 자의 반 타의 반 차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름 함께 공부했던 다인들과 차도 마시러 다니고 여기저기 얼굴은 내밀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차맛도 차에 대한 지식도 차를 대하는 나 자신도 어느 것 하나 또렷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차를 알게 되어 향긋하고 풍성한 좋은 날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불어 ‘또로록 또로록’ 다관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소리가 묘하게 평화로웠던 순간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집안 깊숙한 곳에 묵혀있던 다관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로록 또로록’ 다관에 떨어지는 물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구들 앞에서 마음이 정돈되고 차를 머금자 파도치던 제 속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네가 어쨌더라 저 쨌더라 보다 저 자신을 알고 싶고 제 속이 더 궁금합니다. 또 저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는 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잘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리 차문화협회의 문을 다시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차문화협회의 수많은 분이 우리 차를 통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지금껏 무수히 애써 오심을 느낄 수 있었고 저에게도 웬지 모를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아름다운 아이들을 키워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또로록 또로록’ 차를 내리는 물소리에 저도 아이들도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참 큰 변화입니다.

끊이지 않고 차생활을 계속해 왔더라면 하고 후회도 해 봅니다. 긴 세월을 돌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배우고 채워서 백차처럼 향기롭게 익어가는 차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찬바람 기분 좋게 술술 불기 시작하는 가을 어느 날



글_서울제1지부 지도사범교육생 김미영

서울제1부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특강 강사님이신 한국차문화협회 선배님이 시차 약선차 명인 신경희 선생님께서 새벽부터 먼 길을 오셔서 준비해 놓으신 연잎들과 연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연잎차, 연잎밥 만들기, 연꽃 피우기 실습에 대한 설명으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잎차를 만들기는 전에도 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역시 약선차 명인 선생님의 섬세한 손길과 정성스러운 모습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이자 큰 배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알려주신 연잎을 찢을 때 사선으로, 최대한 얇게 찢는 방법은 만들어진 차의 맛과 향, 비주얼에서도 시중 제품들과

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완성도가 높아 차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내내 하신 ‘차는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다’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서는 연잎 찢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다 찢 연잎은 팬에서 실습으로 이어졌고, 9중 9포의 과정을 꼼꼼하게 반복하고, 중간에 유념도 2~3번 하면서 점점 연잎차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대학원 선배님들께서 찰밥에 견과류 가득 얹은 정성스러운 연잎밥을 맛있게 만들고 계셨고, 중간에 가서 연잎밥 만들기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이 되었던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지부장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씩 해보도록 연잎 피우기 실습을 준비해주셨고, 혼자서 처음 해본 연꽃 피우기는 보기보다 예쁘게 한 장씩 피우는 게 어려웠고, 내가 피운 향긋한 연꽃차를 한잔 마시니 피로도 풀리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동 아닌 노동의 시간을 함께하고 드디어 점심시간, 함께 만든 연잎밥을 점심으로 먹었는데 진짜 꿀맛이었고, 과일과 차 한잔까지 더 해서 행복한 점심 식사를 한 뒤 남은 연잎차 만들기를 하며 수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2022년 9월 서울제2지부 개강식



차 전반에 대한 특강을 통해, 차를 새롭게 보다

글_서울제2지부 지도사범 권미루

푸릇한 풀숲에 누워 눈을 감고 누웠다. 새벽에 풀잎 사이사이로 맺힌 이슬이 얼굴 옆쪽, 볼에 또르르 떨어져 귤가를 스치고 흐르는 기분이었다.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2지부 개강식 날, 신수길 교수님 차실에서 맛본 차 맛이다. 2400년 된 나무에서 딴 귀한 차였다. 나무 나이가 2400년이면 수명 100년 남짓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을 훌쩍 넘어 마을을 지키는 대장군 장승, 솟대나 돌하르방이 가지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 있음이 분명하다. 오랜 시간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러 있으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매해 매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온갖 축제와 난리를 목격한다. 수많은 사람이 나고 스러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본다. 사람이 익고 나뭇잎이 탈 것만 같은 흑서기를 지나 세상이 뽕뽕 얼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은 흑한기를 이겨낸다. 첫 탄생도 밖에서, 수십 년, 수백 년, 2000년이 지나도록 그저 버텨낼 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역사책에 활자로만 적힌 시대를 지나 흑백사진 시기를 거쳐 겨우 컬러로 남은 세상을 접하고 어렴풋이 추측할 뿐인 시간을 넘어 지금을 사는 나무. 푹푹하고 탐스러

운 이파리의 내음이 찻잔과 콧속을 가득 채운다. 예전에 사람들은 나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에 마구 잎을 따 마음대로 차를 즐겼다. 커다란 나무지만 동네에, 집 바로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를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소중함을 알고 난 이후, 이제는 정한 시기에만 나무가 베푸는 선물을 취한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주는, 묵묵히 서 있을 뿐인 나무의 내음을 찻잎으로 뒤으며 오래오래 마음에 새긴다. 여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중국의 어떤 동네에서 세월과 함께 지낸 나무를 느낄 방법은 직접 짐을 싸서 떠나지 않아도 됐다. 서울 한복판의 차실에서 묵묵하고 조용히 앉아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유명작가들의 다기들만큼이나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다. 이렇게 쉽게 2400년을 느껴도 되나 싶어 말간 차색과 찻잎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본다. 귀한 것은 이렇게 쉽게 느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어느 곳에 가, 아름

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옆자리에 누가 앉아 말을 걸어온다. 아무런 설명 없이 투명하고 동그란 그의 체취를 지그시 호흡하는 것처럼 찻잔 가득한 내음을 깊이 들이마신다. 눈과 코와 입으로 떠나는 차 여행이다. 이날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뽕양고 매끈한 겉면에 참외 모양으로 몸통을 다듬어 곱게 빠진 차호에 마음을 빼앗겼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조선 시대 백자 유물 마냥 고고하면서도 유려한 모습이었다. 차인이라면 맘에 드는 다기를 보았을 때, 직접 손으로 매만져 감각을 느끼고 싶어 할 것이다. 여기에 아끼는 차를 넣어 따뜻한 물을 붓고 우려나온 차가 어떤 내음일지, 어떤 맛일지 상상한다. 다소 뜨거운 차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찻잔에 차를 붓는 자신을 떠올려보기도 한다. 상상 속 내 모습이 다소 만족스러워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죽로차를 우렸다. 차호가 따뜻하게 데워진다. 나만을 위한 차가 우려지는 모습을 지켜보니 이제야 정말로 내 것이구나 싶다.

이미 가지고 있는 다기를 사용할 때도 비슷한 느낌일 텐데 굳이 새로운 식구를 들여 차를 마시는 것은 특별하다. 차인이 아니라면 이해하지 못 할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 마시기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 맘에 꼭 드는 무언가로, 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로 공간을 채워 나간다. 그렇게 해야만 무엇보다 나다운 차를 마시고 오롯이 차인으로서 나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차인으로 나아가는 길임이 분명하다. ☯



사랑이 담긴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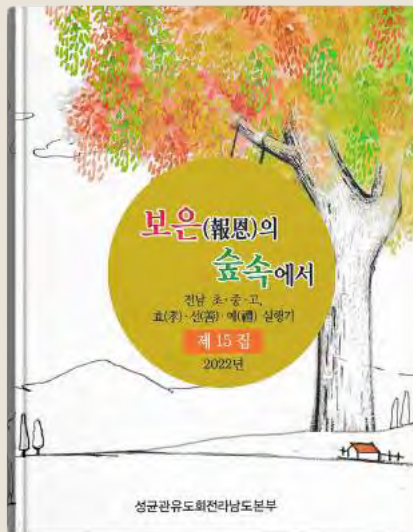
글_전남지부 곡성중앙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지현



전남지부는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 센터 다도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성 8덕목을 접목시켜 행다 교육을 주력하는 한편 다식, 초롱불, 협동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 중이다.

이를 알아주는 듯 많은 격려의 글과 감사의 편지들이 지부장 앞으로 온다. 그중 김정자 지도사범이 지도하고 있는 곡성 지역 아동 센터에서 떡체험을 한 학생이 그 고마움을 담은 글을 투고해 보은의 숲터에 실려 이를 소개해 본다.

내가 다니는 센터에서 떡 만들기 체험을 했다. 떡을 만드는데 색상은 파랑, 빨강, 보라, 노랑, 하얀 등 정말 알록달록했다. 마치 우리 가족과 같았다. 그래서 나는 떡을 예쁘게 만들어 집에 가져가려고 생각했다. 나를 예뻐해 주시는 아빠를 생각하며 초록색 떡을, 엄마를 생각하며 보라색 떡을 만들었다. 내가 만든 예쁜 떡이 알록달록하게 잘 나왔다. 나는 이제 막 만들어진 떡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게 품 안에 챙겨갔다. 부모님은 떡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주셨다. 우리 가족 모두가 내가 만든 떡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행복했다.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가족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싶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



앓은자리 꽃자리

글_부산지부 기초반 강지나

차를 사랑하는 불자님들의 모임 대원사 다도회.

시원한 바람이 부는 10월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속에 반복되는 일상속,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서늘한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에 소소한 행복을 차 한잔의 여유속에서 찾아본다.

일부러 웃다가 정말로 웃게되고 일부러 씩씩한 척 하다가 정말로 씩씩하게 되고 일부러 변해가는 척 하다가 정말로 변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10월 중순, 가야공원 속 대원사 아미타전에 자리를 마련하여

선생님과 수업을 같이 듣는 다우님들과 들차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10분 명상의 시간

일상생활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사방이 트인 곳에서 눈을 감고서 따뜻한 햇살, 바람소리, 새소리, 목탁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기면 우주 삼라 만상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명상의 시간이 끝나고 맛있는 차를 정성을 들여 우려내어 다우님들과 차례로 경건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전에 헌다를 하니 뿌듯함과 함께 다도를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든다.

차로 맺어진 인연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음료가 아닌 오감을 자극하고 감성을 깨우는 차.

색, 향, 미를 음미하며

입안 가득 맛과 향기를 음미하며 목젖으로 흘러가는 한 모금의 차.

최고의 차를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

제31회 초의문화제 전국찾자리 경연대회 대상수상

인성 8덕목으로 예를 익혀, 잣자리 마련

글_전남지부 전문사범 김경자

올해에도 국내 차인들의 잔치 초의문화제가 해남 대흥사 일원에서 조선 후기 다선일여(茶禪一如) 사상을 주창하며, 우리 차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 의선사의 다도 정신을 되새기며 계승 발전을 위해 “초의와의 만남”을 주제로 전국 차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마운다미원 다동이들 조수진(5학년), 백두산(3학년), 조수정(3학년) 그리고 조상숙 선생님과 “해남 대흥사 들차회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갖고 찾자리 경연대회를 참가하게 되었다.

작년에 장려상을 받고 기뻐했고 수고한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무안에 유명한 짬뽕 삼겹살 파티를 했었다. 유난히도 심한 강풍으로 텐트가 날아가고, 추위에 힘들고 떨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올해는 혹여 옷도 단단히 챙겨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린 웃으면서 옷들을 훨훨 벗고 찾자리를 맘껏 즐겼다.

우리 다동이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이었을까? “선생님 우리 언제 또 해남가요” 응.

왜 가고 싶니 하고 물어를 보았다. 한 녀석이 “짬뽕불고기가 또 먹고 싶어요” 배꼽이 빠질까 꼭 잡고 웃었다. 그 대답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리였다. “그래 또 가자”. 기다리던 해남 가는 길. 아이들은 새벽에 투정 없이 일어나 찬기운을 느끼며, 해남으로 GO GO. 우리는 짬뽕 삼겹살을 먹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다.

우리 다동이들은 한 달에 2번씩 차를 즐기며, 인성 8덕목을 바탕으로 예를 익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들차회를 나가 주위에 오신 분들과도 차를 함께 나누며, 홍보도 하고 봉사도 하며 차교실을 즐겁게 함께 하고 있다.

작년에 참가를 해 보았기에 이번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대회에 참가하는 심사기준을 보며, 차의 종류, 차를 우리는 친구. 주제와 찾자리를 설명하는 친구. 차를 나누는 친구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지켜 보았다.

특히 이번에는 관람객 점수가 30점이 추가되었다. 차는 발효차. 조수정 차를 내리기로 결정. 녹차를 좋아하는 친구라 내심 걱정을 했는데 발효차를 여

러 번 내리고 차를 함께 마시며, 어떻게 차를 우리는 게 가장 맛있게 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집에서 계속 차를 마셔 보며 스스로 차 맛을 찾아갔다. 나 역시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본인의 실수로 팀이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한 듯했다. “선생님 발효차가 너무 맛있어”하며 서로가 마시며 평가를 하고 차를 친구들과 즐겼다. 수정이가 이번 기회로 차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백두산 자연을 둘러보고 가을을 직접 원고를 쓰고 외우기. 조수진 누나로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이끌면서 혹시나 동생들이 떨어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역할을 잘 준비해 나아갔다. 조상숙 선생님께서 서울과 담양을 여러 번 오가면서 아이들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찾자리의 꽃꽂이와 다식 그리고 프랑카드 등을 준비해 주셨다.

모두가 한 팀으로 서로에게 응원하며,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공수. 예를 갖추니 심사위원 선생님분들께서도 예를 갖추 주셨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모두 잘 해내었다. 대흥사에 오신 관람객들을 위해 새벽에 녹차를 넣어 계란을 삶아 보온이 잘되도록 써서 오신 모든 분들께 차와 함께 나눠주었다. “차와 계란이 참 맛있구나. 차를 좋아해 주어서 고맙다” 등 칭찬을 아낌없이 해 주셨다. 스티커를 붙이는 관람객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단다. 떨리는 순간이 다가왔다. 부름이 없으니 우린 걸진 걸로 하자 했는데 대상 “마운다미원 들차회팀” 모두 부들켜 안고 즐겼다. 수고로움과 피로가 짝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선생님 우리 짬뽕 삼겹살 이제 먹으려가요” 그래.

그래 수고했다.

힘껏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내년에도 올까? 선생님 1등 했는데 또 올 수 있어요”

차가 나에게 주는 큰 선물이다. 사랑한다 애들아! 인성. 예절 8덕목을 익히며, 아이들 스스로가 배려와 협동 그리고 존중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조상숙 선생님. 아이들을 위하여 모든 일에 숭선수범해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해 주시며, 기꺼이 힘든 여정을 함께 해 주신 두 가족 부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를 짓는다. ☺



담장 너머 세상을 걷다

2021년 에세이스트에서 신인 수필가상 수상, 등단

글_전남지부 전문사범 선수원



새벽 3시다. 요즘은 거의 매일 어두운 고요 속에서 오로지 나의 무릎만이 깨어나 심통을 부린다. 통증은 야행성인가보다. 세상모르게 꿀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지 기어이 나의 잠을 깨워놓고 만다. 쪽쪽 쑤셔대는 통에 이불을 건어내는 것마저 나를 힘들게 한다. 패짚하기 짝이 없다. 거실로 나오는 짧은 거리에도 절절 매는 내 자신이 낯설기만 하다. 잠도 늘렸는지 이미 물러가 있다. 깊은 잠을 매서운 통증이 이겨내고 말았다. 우선 통증완화제 연고를 바르며 무릎을 어루만지며 달래어 본다. 텔레비전을 켜다. 잠시라도 고약한 아픔을 잊게 하자는 일종의 나의 방도다.

체널을 돌리다 어느 한 장면에 순간 멈췄다. 순백의 만년설로 덮인 눈부신 히말라야의 한 봉우리를 여성 산악가가 일행들과 함께 대자연과 혹독한 사투를 벌이며 오르고 있다. 그들의 헉헉거리는 고통의 숨소리만이 천지의 정적을 깨고 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아이스바일로 빙벽을 짚으며 70도 이상 경사진 빙벽을 힘겹게 오르는 한 발 한 발이 가슴을 벅차게 한다. 까마득한 정상을 향해 내

딛는 그 여성이야말로 나에게게는 거대한 산처럼 보인다. '세상을 걷다'라는 프로다. 이때 내 마음 속은 그 여성과 내가 맞대어 비교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온갖 대조되는 표현들로 복잡되기 시작했다. 히말라야 봉우리를 정복하겠다는 강인한 산악 등반가인 여성과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겁을 내는 무릎고장이 난 나약한 나는 그야말로 대비가 극명하다. 그녀가 천년의 소나무라면 나는 그 아래 어린 생명을 내미는 이름 없는 들꽃 같다. 그녀가 6000m가 넘는 곳에 당도해 보여주는, 환희에 빛나는 모습은 실로 고통을 이겨내고 목적을 이룬 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이자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돌아본 나는 한없이 작고 비통하기만 하다. 무릎이 부리는 성깔을 못 이겨 겨우겨우 걸음을 떼야 하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 절망의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분명 저 여성은 죽을 만큼의 고통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히말라야에 도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빠질 나에 놀라 죽을 것처럼 우는 아이와 나는 뭐가 다른가. 더는 나약해서는 안 되겠다. 용기와 힘이 내

안에서 슬그머니 올라온다. 상대적 비애감으로 움츠렸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찌뽕처럼 부풀어 오른 무릎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오히려 그 무릎은 나를 번히 올려다보며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듯하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껴주지 않고 맘껏 부려온 다리가 더는 참지 못하고 서운함을 무섭도록 내보이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

무릎이 고장 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심히 지나쳐버린 일상들이 지금은 하나하나가 달리 보인다. 짙짙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기에 요즘은 사람들의 행불행을 다리 상태로 나누는 나만의 기준이 생겼다. 작은 키를 조금치라도 키워보겠다고 신었던 굽이 높은 신발들은 신발장 저 안 쪽으로 들어가고, 신이나 마나해 선택을 받지 못한 단화들이 빛을 보고 있다. 집 실내 공간에는 오르고 내리는 묘미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4군데 바닥단차가 있다. 지금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나의 무릎이 싫어해 어쩔 수 없이 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외출했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난간을 잡고 간신히 한 발 한 발 내딛는 나를 스쳐, 가볍고 경쾌하게 오르내리는 사람들 특히 그중에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봐야 하는 심정은 복잡해진다. 자꾸만 낙오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달래야 한다. 아직은 건강한 다리로 자유롭게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기에 더 더욱 그렇다. 나의 무릎이 나를 어여뻐 여겨 예전의 상태로 돌려준다면 일상 자체를 매순간 감사하며 살 것 같다. 그리고 나를 찾는 사색의 길을,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서경적 길을 맘껏 걷고 싶다. 낙엽이 쌓인 폭신한 산길을 걸어

송광사 불일암에 올라가고 싶다. 사각거리는 댓잎 소리를 품은 바람을 호호하며 고요한 암자에서 범정스님의 향기를 느껴보고 싶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느 마을의 골목길을 걸으며 정겨움과 아늑함에 젖어보고 싶다. 청산도의 보리밭길을, 아침 햇살을 받아 선홍빛그늘을 펼쳐주는 내장사의 애기단풍나무 길을, 영광의 탁 트인 해안 길을, 하동의 야생 차밭 사이사이 길을, 바다내음을 맡으며 돌아보는 생생한 활력이 넘치는 통영의 어시장을, 가을이면 노랑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선운사 은행나무 아래 등을 걷고 싶다. 아직은 미명인 새벽에 부어오른 무릎을 보며 바라는 것도 많다. 이런 나를 보며 무릎은 부담스러워 더 부어오를지, 아니면 안쓰러워 원을 들어주려고 통증을 건어 들일지 모르겠다.

밖은 아직도 거무스레한 어둠에 잠겨 있다. 좀 있으면 어둠이 어슬어슬 풀어지고 은회색의 하늘 바탕이 치자색으로 변하다가 서서히 황금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면 새해 첫날의 붉은 해가 떠오를 것이다. 무릎을 싸안고 맞이하는 새해 첫날, 늘 가족을 위한 소망을 주저리주저리 읊었지만, 오늘은 내가 엄마인 것도 모른 척 하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원을 간절하게 빌겠다.

더 이상 자지 않고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영접해야겠다. 창문 밖 세상의 색이 달라지고 있다. 좀 지친 몸을 하고 현관 밖으로 나간다. 동향인 우리 집 앞산 너머에서 밝아오는 힘찬 기운이 나에게로 전해온다. 감동적인 해가 그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담장 너머 세상을 걷고 싶습니다. 저의 무릎을 잘 부탁 합니다' ●●



풍경 속 다양한 정과들의 이야기

글·사진_순천지부 전문사범 이강자(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 대상 수상작)

인삼정과

- ① 인삼을 깨끗이 손질 후 100℃ 끓인 물에 분량의 엿기름 가루와 녹차 가루를 넣고 충분히 우린다.
- ② 냄비에 ①의 물을 체에 걸러 분량의 인삼을 넣고 5분 정도 끓인다.
- ③ ②의 인삼을 건조 시킨다.
- ④ ②의 물에 대추를 넣고 충분히 조린 후 걸망을 이용하여 대추껍질과 씨를 제거한다.
- ⑤ ②에 ③의 인삼과 분량의 조청을 넣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조리준다.
- ⑥ ⑤의 조리된 인삼을 냉장 건조 후 인삼정과가 완성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장식한다.

당근정과

- ① 당근을 0.3mm 크기로 얇게 썬다.
- ② ①을 꽃문양으로 찍어 낸다.
- ③ 100℃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은 후 ②의 당근꽃을 30초 정도 살짝 익힌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 한다.
- ④ 서늘한 곳에서 하루 정도 건조 시킨다.
- ⑤ ④에 꿀을 고루 바른 후 저온 건조해 완성한다.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사랑방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가나다 순) 부산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순천지부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사)한국차문화협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수도권 집합금지 규정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사진 중 인원 초과와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경 남 지 부

시월의 마지막 날, 나만의 찻그릇 만들기

차인큰잔치에 참가한 교육사범들 고생했습니다



지부장 황미경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차 한 잔 마십니다. 차실 창 너머 작은 마당을 바라보기도 하고 지난 밤에 철 모르고 내린 뽕얀 서리와 이야기도 나눕니다.

찻그릇들을 만지며 차를 마실 때,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따뜻한 샘처럼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茶 생활이 가져다주는 정신건강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나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차를 만드는 것은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여 낳아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차를 만들어 우려서 찻그릇에 담는 것은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만나는 것입니다.

직접 기르고 차를 만들어 마시는 호사를 누리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65기 사범반 과정에서 '나만의 찻그릇 만들기'에 참여하여 다식기를 만들었습니다. 가로로 긴 모양인데 완성된 접시를 보니 다식을 놓고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집니다.

사범반 수업에 교육생들과 함께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분들의 다양한 활동도 알게 되

고 차문화에 처음 입문하여 관심 가득한 모습이 활력을 줍니다. 지난 시월 차의날 기념 올해로 33회째 열리는 <차인큰잔치>는 우리 전통문화인 차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재정립하여 널리 알리고 보존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의 고품격 차문화 행사였습니다.

우리 경남지부는 가루차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는데 교육사범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접하는 행사 자리인데 모습도 아름답고 숨쉴, 맵쉴, 마음씨에 반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공부 하셔서 좋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글_전문사범 조희옥



제10회 전국 차문화, 행복한 가족사랑 섬김 예절 공연대회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 주최

지난 9월 마지막 주, 맑은 가을 하늘이 참 고마운 날에 제10회 전국 <행복한 가족사랑 섬김예절 공연대회>를 개최했다. 애정으로 응원해주신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협회 부회장이신 강정자 고문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어렵지만, (사)한국차문화협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행사에 임하였다. 우리 경남지부는 차문화를 알리고 인성지도 사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차(茶) 관련 행사를 하는 명실상부한 경남지역 최고의 지부가 되겠다.

'다반사'라는 말처럼 가정이나 사회에서 차를 마시고 예를 익히는 일이 사람이 살아가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면 좋겠다. <행복한 가족사랑 섬김예절 공연대회>가 또 하나의 흠뻑을 흠뻑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을 꿈꾸고 어른들에게는 차를 마시며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 속에서 가족 사랑과 좋은 취미를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차문화는 준비, 공부, 정리, 행사, 봉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참여의 시간이다. 사범님들 품속 가득 청향이 일어 난향, 화향으로 함께 하시니 늘 배우며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는 날이었다.

글_경남지부장 황미경



광 주 지 부

3년만에 열린 전국 차인큰잔치

광주지부 차음식 및 찻자리 마련

2022년 10월 22일 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열렸다.

행사장은 모든 준비가 마쳐져 있었으며 각 지부별로 찻자리와 체험장도 마련되어 잔치 분위기가 물씬 풍겨 저절로 들뜬 마음과 기대감이 혼재되어 정갈한 차인의 자리를 만들고자 혼자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다. 광주지부는 찻자리를 하나하나 기품있게 준비하고, 각자 출품할 음식도 받은 번호표 앞에 가장 멋지게 뽐낼 수 있게 진열했다.

모두들 어마어마한 차음식들을 준비해 와서 어렵게도 내 작품은 순위 안에 들지도 못했지만, 구경만으로도 눈 호사하는 즐거운 잔칫날이었으며 차



음식을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개막식 헌다례에 광주지부장님께서 차를 올리셔서 우리는 더욱 관심있게 보며 차인의 날을 즐겼다. 다들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고 그동안 익은 얼굴들과 웃음으로 안부인사도 나누며 한껏 잔치 분위기를 누렸으며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지부별 여러 가지 차맛, 체험장, 무대공연, 시상식 등등 푸른 가을하늘 아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여유, 흥겨운 잔칫날을 즐기고 다음을 기약하며 제33회 차인의 날 큰잔치 찻자리와 행사를 갈무리 하였다.

글_ 전문사범 박점희



한마음 한뜻으로 찻자리 마련

박혜란 지부장 헌다례 인상적

코로나 시국이 조금씩 풀리게 되면서 드디어 열린 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

차문화 입문 후 맞는 첫 행사였기에 그 의미가 남달라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었다.

수줍은 듯 조금씩 물들어있는 단풍을 병풍 삼아 지부마다 부스가 하나둘 세워지고, 행사장 곳곳에 녹차와 황차, 홍차, 가루차, 청태전 등 다양각색의 아름다운 찻자리가 마련되어 가을의 정취와 함께 다양한 차를 즐길 수 있었고, 광주지부도 담양 죽로차협회 선생님의 수제 죽로차를 선보이며 담양의 맛과 멋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차인큰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헌다례 행사가 무척 인상 깊었는데, 새하얀 복식을 갖추고 정성스레 예를 다하시는 박혜란 지부장님의 모습에서 예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전남지부의 '청태전' 체험은 함께 참여한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공부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행사장 축제의 백미인 '전국 차음식 전시 및 경연 대회'가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였는데 이전 대회에서 '차들이 반해버린 맛있는 다식들'이라는 주제로 14개의 다식으로 수상한 박혜란 지부장님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대상) 수상 이력은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정말 존경스러웠다. 또 20기 선배님들의 출품작 수상 역시 너무 반갑



고 축하드릴 일이었다. 우리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1990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전국 차인큰잔치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열리지 못한 점이 그저 안타까웠다.

마치 그간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양 전국 각 지부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는 열정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첫 행사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차인큰잔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주관해주신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모두 하나 되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한국차문화협회 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박혜란 광주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글_ 전문사범 교육생 김보련

다양한 차 체험을 통해 차인으로 태어나다

다채로운 차음식을 통해 차문화의 긍지를 가지다

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가 3년 만에 열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대형버스에 몸을 싣고 달려다 보니 해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더니 아침 햇볕으로 붉게 물든 산과 벼수확을 하고 난 넓은 들판들이 보였다. 이번엔 어떤 음식들이 출품될지 다른 지부들의 찾자리는 어떻게 꾸며질지, 어떤 체험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 지루할 틈 없이 인천에 도착하였다. 개회 시작과 함께 각 지부의 찾자리가 펼쳐지고 날이 추울 거라는 걱정과는 달리 햇볕도 따듯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 상쇠 연을 선두로 천국의 계단이라는 가오리연들이 높이 날기 시작하자 코로나로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마저 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다. 같은 차이지만 우리는 사람이 다르고 다구가 다르며 찾자리 분위기도 달라 차 맛도 다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 뒤쪽 너른 마당에는 차와

관련된 음식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작품명만 봐도 맛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과 정성이 가득가득 들어 있는 게 보였고 작품 세팅 또한 멋져서 어떤 것도 허투루 볼 수 없었다. 한가지 소재로 그렇게나 많은 음식이 만들어지다니 대단한 솜씨들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없게 되고 약간은 소심해졌지만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되는 듯 마음속으로 일등을 뽑아보기도 하고 맛도 상상해보는 소소한 즐거움 또한 있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출품작품들 정리를 잠시 도와드렸었는데 서로서로 격려하며 마음도 나누고 조리법도 공유하기도 하고 살짝 맛도 볼 수 있어서 입이 호강했다. 당장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떡차 홍차 녹차 등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지루할 틈 없이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글 전문사범 노혜련



대구경북제1지부

제33회 차인큰잔치 차음식 경연대회에서 3개 상 수상

차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보성군수상 수상



지부장 박경숙

지난 10월 22일 우리 지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차음식과 찾자리 준비에 정성을 쏟았다. 매년 열렸던 차인큰잔치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하게 되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회원들의 도움으로 설레는 마음과 하루의 무탈함을 기원하며 버스에 올랐다. 3년 동안 침체한 탓인지 기대했던 것보다는 결석자가 많아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새벽부터 최선

의 준비를 하여 인천시 도호부에 도착했다. 대구경북제1지부는 차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보성군수상 3개의 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우리 지부는 행사를 끝내고 내려오는 버스에서 서로서로 파이팅을 외치며 회원들과 상금으로 저녁을 먹고 행복하고 알뜰한 하루를 보냈으며, 앞으로 축제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했다.

글 지도사범 김영희



8덕목을 통한 예절교육

예절 교육의 중요성 깨달아

초등학교로 인성차문화예절 교육을 갔다. 예전과 다르게 다도 시간이 인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

첫 시간부터 어린 학생들이 진지하게 잘 따라 했다. 예절은 꼭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것 같다. 대구경북제1지부에서는 예·배려·협동·존중·책임·소통·정직·효 8가지 덕목을 이해시키고, 하나



하나 예를 들어가면 교육했다. 반복 수업을 할수록 재미있어하며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안녕히 가세요. 언제 또 오세요.'라고 한다. 가슴이 벅차 오르고 기쁘다. 인성차문화예절 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은 있었지만, 행안부 교육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교육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박경숙 지부장

대한민국차문화상 수상

대구차문화 축제에서 협회의 위상을 높인다

지난 11월 8일 대구차문화축제가 있었다. 대구경북제1지부 연구반 회원들도 10여 명 참석했다. 수준 있는 찾자리와 학술대회는 대구의 차인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중에 더 뜻깊은 것은 (사)한국차문화협회 대구경북제1지부 박경숙 지부장님이 대한민국차문화상을 수상한 것이다. 박경숙 지부장은 그동안 차문화 발전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



되어 대한민국차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차문화와 예절은 차근차근 세월을 덧입어야 품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글_전문사범 이명자

부산 지부

아미타전 헌다행사를 가지다

차인으로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대원사 수업이 어느덧 두 번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계곡따라 산속에 자리한 대원사는 오래된 시간속에서도 그 기품을 그대로 간직한 사찰이다. 화려함을 비껴가는 절제됨을 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웅전을 지나면 계곡 옆에 자리한 다도실을 만난다. 이 곳에서 남자회원 3명을 포함한 대원사 신도 회원들과 일반회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다도수업을 하고 있다. 주지 스님의 다도에 대한 관심에 힘있어 다우들과 함께 차를 즐기고 명상도 가지는 힐링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 봄에는 보성에서의 제다수업, 가을엔 밀양의 도자기 투어 등 차인으로서의 배움을 익혀가고 있다. 이번 가을에는 대원사 아미타 부처님전에 헌다행사



를 가졌다. 다도 회원들이 들차 수업형식으로 정성스럽게 우려낸 녹차를 격식 갖추어 경건하게 아미타전에 헌다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차인으로서의 의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글_지도사범 최경화



서울제1지부

녹차를 제대로 마셔보았는지요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차를 모른다

단풍의 잎사귀가 끝까지 붉게 적셔질 즈음 서울제1지부에서는 바자회를 열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차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차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바자회에 참여했다. 해당 바자회는 마포구에서 열린다는 말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부스에서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자들이 차를 시음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녹차와 홍차를 우렸다. 하지만 이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녹차를 따르기 전 “아, 저는 녹차는 쓴맛이 나서 잘 안 마셔요.”라는 말을 했다. 사실 나도 녹차를 제 온도에 우리고 티백이 아닌 찻잎을 적정 온도에 깨워 마셔본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공감했다. 찻잔에 사범님들께서 우려준 차를 마신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 마셨던 씩씩한 녹차와는 다른 맛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전에 글에서 차를 느끼는 방법의 경우 찻물의 색을 감상하고, 향을 맡아보며 찻물의 맛을 음미하는 것이 차를 즐기는 것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바자회를 참여한 장애인

에 의해 말을 정정해야 함을 느꼈다.

비장애인인 나로서는 찻물의 색을 보고 느낌으로써 온전하게 차를 즐기는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나의 배움의 부족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볼 수는 없었지만 차를 마시고 맛을 음미하고 그려보는 것을 통해 차를 온전히 느끼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부스를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차를 찻잔이 아닌 종이컵에 따라주는 상황까지 갔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차의 맛과 분위기를 전파할 수 있다면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형식과 정해진 틀을 지키지 않더라도 가볍게나마 차의 부드러움을 느꼈기를 바란다.

글_지도사범 고영화



지부장 이석에

2022년 마포구 NGO 자원봉사 박람회 & 공익바자회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

지난 10월 26일 마포구청 앞 광장에서 2022년 마포구 NGO 자원봉사 박람회 & 공익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제1지부는 몇 년째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대면 행사는 이번이 3년 만에 처음이라 오랜만에 참가한 셈입니다. 15곳의 참여 부스에서는 체험, 홍보, 재능기부가 이루어졌고, 버스킹과 마술공연 등의 축하공연도 하였습니다. 서울제1지부에서는 찻자리를 마련하여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녹차와 홍차 등 우리 차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지부장님이 준비하신 여러 다식들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찻자리 한쪽 옆에 사범 선생님들이 제공해주신 바자회 물품들을 전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우리 부스가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설치되어 더욱더 많은 분이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차문화협회와 우리 차

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듯합니다. 마시는 차가 무슨 차인지 물으시기도 하고 비치된 리플릿을 보시며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며 협회 사무실로 방문 의사를 밝히신 분도 계셨습니다.

매년 참여하는 행사이니만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찻자리를 기획하고 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서 이 행사가 우리 서울제1지부의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어딘가 서먹한 선후배 사이였어도 같이 종일 붙어 있다 보면 찻잔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친근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역시나 교육생 선생님들과 서로를 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어서 우리가 드린 차를 마시고 행복해하시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가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글_지도사범 이은영



서울 제2지부

2022년 노원 50+ 차와 함께하는 마음 힐링 수업 진행

어른신들에게 차의 즐거움을 선사하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노원에 있는 50+에 갔다. 50+는 아담한 5층 건물로 오늘 수업이 있는 건물이기도 하다. 오늘 수업은 정상임 전문사범과 조상숙 전문사범 그리고 제가 담당하기로 했다. 그런 이유로 두 전문사범은 다구와 차를 정성껏 가져왔다. 2층 사무실에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고, 3층 강의실로 가면서 두근거림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담당 선생님과 통화를 할 때 코로나가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다독이고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요즘은 명상, 마음 챙김, 테라피 등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차를 가지고 맛을 보며, 색을 보고, 향기를 느끼며 나를 다독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마음 힐링 시간은 그 의미가 컸다.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수업을 신청했다. 4회에 걸쳐 녹차, 홍차, 황차, 보이차를 설명하고 같이 느끼고, 보고, 맛보며 차를 알아가는 수업을 하고(코로나로 마음껏 맛보지는 못하고 한 모금 드시면 다시 마스크를 쓰며 수업을 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호르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햇볕이 중요하고, 먹는 음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며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알려드리자 따라하시며 좋다고 말씀하신다. 수업이 끝날 때는 다음에는 수업이 없느냐 또 들어보고 싶다고 말해주는 것에서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글.전문사범 류소영



순천지부

2022『찾아가는 인성 차문화 예절교육』 실시

여수 관내 6개 학교 대상으로 전통문화 소개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에서는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인성 차문화 예절교육 주간으로 정하여 여수시 관내 6개 학교 (충덕중, 문수중, 구봉중, 무선중, 진성여중, 진남여중)를 대상으로 순천지부와 협약하여 『2022 찾아가는 인성·전통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다법을 익히며 다도정신을 통한 상호 배려와 존중, 그리고 차를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며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차시 교육내용은 모든 학생이 전통 복식인 한복을 바르게 입고 전통 배례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우리 것을 알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얼을 가슴에 담도록 여학생에게는 한복을, 남학생들에게는 갓과 도포를 준비하여 의복을 갖추어 입고 의젓한 조선의 선비와 고운 규수로 변신하여 학습에 임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스럽고 흐뭇하였다.

2차시에는 한복차림으로 규방다례의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를 배우는 시간으로 이강자 전문사범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3차시에는 손님에게 차와 다식을 예의 바른 태도로 대접하는 법과 예의 있게 차를 마시는 법을 익히고 식탁에 바르게 앉아 포크와 젓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티 푸드 먹는 법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테이블 매너를 체험하고 익히는 교육을 김옥숙 사범이 지도하였다.



“2022 고창 차문화 유산 국제 학술대회” 세계 명차 품다회 참여

각국 다양한 명차 시음할 수 있도록 순천지부 주관

지난 11월 4일(금) 고창 차문화 유산의 국제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서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향차 문화의 시원지이자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고창의 차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학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 선보인 고창의 전좌 바위 위에서 연출한 만다라 헌공다례 의식은 참으로 진귀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고창의 전좌 바위와 중국 푸젠성 천관대의 모습이 꼭 닮아있다는 것이 이슈가 되어, 이 학술대회의 흥미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었다.

1부 순서로 진행된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고창 두암 초당의 전좌 바위와 중국 푸젠성 천관대의 비교, 신라 원표 대사의 차 전파의 영향이었고, 제2

주제는 한·중 향차 문화의 발전과 영향, 그리고 부풍향차보에 등장하는 다구와 향차 연구, 동의보감에 나오는 향차의 효능에 관한 내용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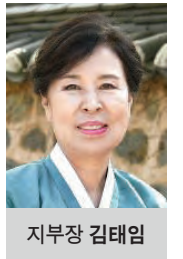
이어서 2부 순서로 진행된 세계 명차 품다회는 각국의 다양한 명차들을 시음할 수 있도록 순천지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아 산 지 부

회원과 함께 찾자리를 가지다

연향에 취해, 모처럼 회원들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다



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는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 중국차 동아리는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중국차 동아리 수업은 광덕면 춘호재 정자에서 했다. 중국차 수업에서는 무이암차 중 정암수선 육계 수업으로 진행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차를 우려 마시며, 정답도 나누고 차에 대한 품평회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앞으로 동아리 활동 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 회원들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초가을 햇살이 아름다운 날 회원들과 중국차를 마시며, 즐겁게 지내고 왔다.



동아리 수업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회원들과 친목을 지키며 우리차 마시기 운동 펼쳐

아산지부는 아산시 후원으로 다도와 전통문화 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차문화와 전통문화를 바로 알리고 지키기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차문화 개론을 비롯하여 녹차, 발효차, 중국차, 홍차, 우리차 마시기 운동 등등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또한 한 달에 한번 다양한 차를 마시며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의견도 나누고 회원들과 친목의 시간도 다지고 있다.



온양향교 다도반 개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참여

아산시 후원으로 온양향교에서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2시간씩 9월부터 다도반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정지 상태였는데, 향교 다도반 수업은 가뭄 끝에 단비인 것 같다.

회원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교육 장소는 명륜당으로 너무 훌륭한 공간이다. 많은 사람이 좋은 공간에서 차 공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보람으로 느껴진다. 앞으로도 차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산지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아산지부 선비 야행 찾자리 마련

전국의 차인 및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

아산 송악면 외암리 민속 마을 문화 행사 때 아산지부에서 선비들의 찾자리 행사를 주관했다. 상류층 가옥 사랑채에서 진행된 선비 야행 찾자리는 많은 차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건넌방에선 다례 체험, 대청마루에선 전통차 시음회, 뒷마루에선 발효차를 준비하여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밤하늘엔 달빛, 찾자리에 등불을 밝히고 정담을 나누며 마시는 차맛과 분위기는 낮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다. 전국에서 온 관람객과 외국인들 모두가 가을밤 고택의 찾자리는 멋지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이번 야행 찾자리는 대성공이어서 아산지부 또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향교 추계 석전대제

아산지부 녹차 발효차로 차 봉사를 하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해 왔던 것이 풀리면서 아산지부는 추계 석전대제 찾자리 봉사를 했다.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추계 석전대제에 아산지부는 녹차 발효차 등을 준비했다.

향교 유림 어르신들은 '차 맛이 참 좋다. 수고한다. 고맙다.'라며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다. 차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차를 봉사하는 일은 언제나 즐



겁고 기분이 좋은 일이다. 아흔이 넘으신 향교 어르신께서 쓰는 글씨는 인쇄한 것처럼 단아하고 아름답다.

항상 뵙고 느끼는 것이지만, 훌륭한 성품에 덕까지 갖추어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짚풀 문화제 및 관 계례 행사 가져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

지난 10월 22일 아산시와 민속 마을 보존회가 주최하고 아산지부가 주관한 짚풀 문화제 및 관 계례 행사가 열렸다. 짚풀 문화제 및 관 계례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이다. 이번 짚풀 문화제 및 관 계례 행사는 외암리민속마을

상류층 가옥 고택에서 열리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 관자 이광희 군과 계자 황가원 양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이들이 성년식을 치르고 한 사람의 사회인과 어른이라는 긍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인천지부

인천지부 사범교육생들과 함께

조출한 개강식이었지만, 더욱 불발하는 인천지부가 되자고 다짐



지부장 조영아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조출한 개강식을 했다. 기존 사범 교육생들의 교육 신청이 저조하고 새로운 사범들로 구성된 인천지부는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과 대안에 대해 고민했다. 다시 만들어진 인천지부 사범교육생 여러분과 함께 알차고, 아름다운 차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부 선배 차인과 함께 인천지부를 잘 이끌어 가자고 다짐했다.



송도 국제도시 바람의 연축제

1박 2일 인천 시민을 위한
무료 차 체험 행사 가져

인천지부는 1박 2일 동안 인천 시민을 위한 무료 차 체험 행사를 송도 국제도시에서 가졌다. 첫날은 연축제에 온 인천 시민들의 차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로 인해 가족 간, 연인 간 화합의 모습이



정다워 보였다. 둘째 날은 비가 오는 관계로 시민들의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시민이 가을비를 맞으며 차 체험을 하는 열정을 보여, 우리 회원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행안부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즐겁기만 했다

인천지부는 행안부 수업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즐겁기만 했던 행안부 수업이 9회에서 12회로 늘어나면서 많은 학생에게 차를 소개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다관 뚜껑 구멍이 왜 12시 방향인지 등 예리한 질문에 내심 기분이 좋았다. 질문에 관해 설명해 주니 어린 학생들



이 박수를 보내고 비로소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밝은 웃음을 지었다.

행안부 수업을 무탈 없이 진행한 것은 인천지부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천 연수구 중고등학교 한복체험과 차예절 수업 가져

가천대의 협조로 이루어진 교육

인천지부는 가천대와 협력하여 인천 연수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복체험과 차예절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우리 고유한 차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밝은 미소를 보였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차문화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느꼈고 우리 차문화를 알릴 기회를 제공해 준 가천대 교육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전 남 지 부

광주 전통차 특별전에서 생활차, 선비차 체험 주도

청태전 마시기 운동 부스 운영, 관람객들에 큰 호응



지부장 서난경

2022년 광주 전통차 특별전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개최됐다. 2년 만에 대면으로 시행된 이번 행사에는 광주, 전남지역 차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아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초대된 전남지부에서는 생활차, 선비차 행다 체험과 아름다운 차자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위인숙 1급전문사범이 주축이 되어 이끈 “청태전 마시기 운동” 부스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떡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또 강현식 교육생(불갑요) 역시 다구 및 도자 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지부 대학원생들과 재학생, 졸

업생 30여 명이 당번을 정해 일사불란하게 체험을 주도해 참여 단체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대회장인 여연 큰스님께서 특별히 전남지부 회원들에게 저녁 밥을 사주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글_1급전문사범교육생 박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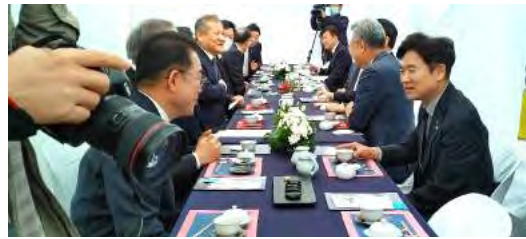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참여 화해와 평화의 역사로 승화되길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을 추모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이 지난 10월 19일 전남 광양시민 광장에서 300여 명의 유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념식에 앞서 열린 위령제는 ‘여순 10·19, 진실의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전남도립국악단의 진혼무와 유족의 사연 낭독, 여수시립합창단의 추모합창, 전남도립국악단의 ‘눈물꽃’ 공연이 펼쳐졌는데, 전남지부에서는 귀빈 찾자리와 유족들에게 따뜻한 찾자리 봉사를 펼쳐 유족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받았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전남지부 회원들은 여순사건이 현대사의 비극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역사로 승화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글_1급전문사범교육생 나혜영



건강한 장년을 위한 생활 속 민간요법

초, 중등 전남 교원 직무 연수 참여

전남지부는 지난 10월 21일과 10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전남 초, 중등 교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장년을 위한 생활 속 민간요법”이라는 주

제를 가지고 차 이야기와 공진단 만들기 체험을 주관했다. 진도 솔비치에서 열린 초등 연수는 지난봄 원숙기 연수에 호응이 좋아 다시 실시하게



되었는데, 서난경 지부장은 시대별 음다법을 설명하고 삼국시대에 자차법인 청태전을 끓여 설명하고, 고려시대 점다법은 가루차(말차)를 내고, 조선시대 포다법 설명에는 녹차를 우려 내 교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여수 예술랜드에서 열린 중등 교원 연수에는 교육장 및 교장단 30여 명이 참여했는데 소박한 다화와 아름다운 찾자리에 탄성을 자아내며 집에



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공진단 만들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연수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전남지부 회원들의 술선수범하는 모습에서 다도 예절을 현장에 접목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중등 연수 관계자는 이번 연수의 호응이 좋아 12월에도 연수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해 왔다.

글_1급전문사범교육생 이정희

선비차 행다를 통해 한국의 차문화를 체험

전남지부 ‘외국인 전통문화 한마당’ 운영

전남지부는 지난 10월 28일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외국인 전통문화 한마당”을 운영했다. 3개국에서 한류 문화를 사랑하는 60여 명의 외국인 참여했는데 선비복을 입고 선비차 행다를 통해 한국의 차

문화를 체험했으며, 전통 다식 만들기, 초롱불 만들기, 투호 던지기 등을 체험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서난경 지부장의 나레이션에 맞추

어 주정숙, 김경자, 위인숙 전문사범들의 선비차 시연을 보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60여 명의 외국인은 박향희, 박찬숙, 박소미 등 5명의 전문사범들의 지도로 선비차를 익혔다,

초롱불 체험장에서는 나혜영(전문사범교육생), 조화영(지도사범교육생), 옥원주(지도사범교육생)이 체험자들을 도왔고 전통 다식 만들기에서는 이정희(전문사범교육생), 유성란(지도사범), 김선숙(지도사범), 류선희(준사범), 선비복 입기에서는 이미례(전문사범), 김숙(지도사범)등이 참여해 선후배 간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전남지부 회원들

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즐겁게 지냈으며, 한편 감사의 뜻으로 자신들의 나라 화폐를 기념으로 주기도 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글_지도사범교육생 조화영



제3회 강진 야생차 찾자리 대회 전남지부 다산상, 동상 수상

제3회 강진 야생차 찾자리 대회가 지난 10월 29일 강진 오감통 일대에서 전국에서 모인 30여 팀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다산 정약용의 뜻을 기리고 강진 야생차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둔 이날 행사에 전남지부는 두 팀이 참가해 동상(주정숙, 이정희), 다산상(박소미, 추양미)을 수상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초당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찾자리를 꾸민 박소미 지도사범은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잇는 사색과 명상의 다산 오솔길을 걸으며 다산의 열정을 느껴보고 다산의 가족 사랑을 말하고 싶어 비단 매트와 화투의 메조를 이용해 하피첩을 표현하는 센스를 보였다. 글_지도사범 추양미

천년의 역사를 지닌 떡차 만들기 체험 운영 차로 배우는 재미있는 인성교육

전남지부는 지난 11월 5일과 8일 양일간 천년의 역사를 지닌 떡차 만들기 체험을 했다. 육우의 다경에 나온 방식으로 제다한 떡차와 제조 후 바로 마실 수 있는 발효 떡차를 함께 만들었는데 이날 시음을 통해 중국의 육보차와 보이차와 비교 해도 손색이 없는 맛을 느꼈다. 한편 전남지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한국 떡차 장흥 청태전을 알리기 위해 청태전보존회 지원을 받아 전남지역 3개 학

교를 방문해 9차례에 걸쳐 “차로 배우는 재미있는 인성교육”을 운영하기도 했다. 글_전문사범 위인숙



충 북 지 부

진천 이월초등학교 예절교육 진행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 교육하는 보람 느껴



지부장 박숙희

지난 10월 6일(목) 오후 2~4시 진천 이월초등학교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예절과 다도 교육이 있었다. 허윤숙 전문사범이 주 강사를 맡았고 정운경, 임미희 사범이 보조강사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방과 후 수업으로 특별히 마련한 차로 배우는 예절교육은 참가 학생들과 담당 교사에게 흥미와 보람을 주기에 충분하여 다음 수업에 대한 제안도 받았다.



충북지부 '재미있는 인성 차(茶) 놀이' 펼쳐다

인성교육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지부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차(茶)로 배우는 '재미있는 인성 차(茶)놀이' 교육이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천 삼수초등학교에

서 방과 후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 후원과 우리 협회 주최로 마련된 사업으로 충북지부가 맡은 부분인 이 교육은 허윤숙 전문사

범(우리 지부 사범회 총무부장)이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차 교육으로 8가지 인성교육을 손쉽게 즐겁게 펼치기 위한 시간을 위해 주 강사는 허윤숙, 김영희, 이병숙, 윤해정 전문사범이 맡았고, 보조강사는 임미희, 정운경, 신승연, 정미영 사범이 맡아 원활한 수업이 펼쳐지도록 도왔다. 참가한 12명의 학생은 차 마시기를 너무 좋아하여 다도 수업을 기다리고 있다며 열렬한 즐거움을 표했다. 팀별로 강사가 달라지는 것에도 호기심을 보이며 지난 시간에 배운 예절을 실천하고 있다고 서로 자랑하여 강사들에게 보람을 안겨주었다.

담당 교사도 인사하는 모습부터 말하는 태도까지 학생들이 달라졌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흐뭇해했다.



우리 지부 사범회 모임 3년 만에 갖다

제2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지난 11월 14일(월) 17시 사범회가 우리 교육장 효동원(曉東院)에서 있었다. 허윤숙 사범회 총무부장 주재로 15명의 사범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의 행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였다. 오늘의 차는 지부장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보이차와 대홍포, 육계, 수선의 무이암차이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차 마시며 차에 대한 계획을 세우니,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있을까. 사범회에서 마련한 풍성한 과일과 충북 1기 전인숙 사범님의 군고구마까지 더

해졌으니 더할 나위 없었다. 우리 지부 제2의 힘찬 걸음을 서로서로 기원하는 시간이었다.



2022년 12월 자격검정 시행 공고

- 접수: 2022년 12월 5일(월)까지
- (사)한국차문화협회 홈페이지 민간자격 (www.koreatea.or.kr)
- 전형료 : (사)한국차문화협회 각 지부 계좌로 입금(지부에서 일괄 처리)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 3급) 등록번호(제2010-0264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2년 12월 17일(토)	2023년 1월 7일(토)
전형료	■ 3급 : 60,000원 ■ 2급 : 80,000원+40,000원(사범연회비, 우송료 별도)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2급) 등록번호(제2015-005314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2년 12월 17일(토)	■ 2급 : 2023년 1월 14일(토) ■ 1급 : 2023년 6월 30일(금)
전형료	■ 2급 : 80,000원 ■ 1급 : 100,000원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등록번호(제2015-005329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2년 12월 17일(토)	2023년 6월 30일(금)
전형료	80,000원	
대상자	전문사범 졸업예정자	

- 장소 : 추후 공지
- 자격검정 최종 발표 : 2023년 1월 17일(화)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환불규정 : 접수마감 전까지 응시료100% 환불 / 검정 당일 취소 시 응시료 30% 공제 후 환불
- 자격관리기관정보 - 기관명: (사)한국차문화협회 / 대표자: 최소연
- 연락처 : (02) 719-7816 / 이메일: koreatea@unitel.co.kr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34, 3층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주최하는 ‘등록민간자격 자격검정’ 시행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 9월~2022년 11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입금 순으로 정리)

협회 발전 찬조금

부회장 · 박광욱 (500,000원)	이사 · 연규남 (500,000원)	부회장 · 차영민 (200,000원)
부회장 · 강정자 (120,000원)	이사 · 문차남 (200,000원)	부회장 · 김가영 (500,000원)

특별회비(임원)

지부장 · 김영애 (5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광주지부 · 김보련, 김용한, 이영희, 이인숙
대구경북제1지부 · 황혜경
부산지부 · 최경화
서울제1지부 · 강유리, 진인순, 최성한, 박정우
서울제2지부 · 최근순
순천지부 · 이강자
수원지부 · 박정애, 장성임, 조명숙
인천지부 · 김태전, 주순복, 위타점, 원종혜
전남지부 · 박인숙, 황은미, 박선희, 나혜영, 이은영, 김인숙, 이미숙, 송순덕, 위인숙, 이은숙, 임영란, 이미례, 김은정, 오의영, 박명숙, 양선례, 허순례, 주정숙, 김낙겸
전북지부 · 신희숙, 김명례, 안진영, 국은희, 정미영, 한영순, 김미지, 이봉숙, 전순경, 육정화, 김 달, 박점복, 박영심, 최성숙, 박미혜, 김 민, 이형자, 정성복, 손혜란
충북지부 · 이정희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2년 9월-2022년 11월 우송료 납부자 명단

9월 통장 입금

광주·김인숙, 김지영 / 대구경북제1·김미영, 황인경, 이국주 / 부산·최경화 / 서
울제1·강유리, 진인순, 최성한

10월 통장 입금

대구경북제1·천미경 / 서울제1·장미애, 김세정, 이봉련, 김정아 / 순천·김보아,
이혜진 / 아산·김보민 / 전남·황은미

11월 통장 입금

경남·황동순, 김임순, 안선희, 이순영, 김세란 / 광주·이영희, 이인숙 / 서울제1·
변교영 / 서울제2·최근순 / 수원·장성임, 조명숙, 박정애 / 순천·이강자 / 인천
·주순복, 원종혜 / 전남·박선희, 나혜영, 김은정, 위인숙, 이은숙, 김인숙, 송순덕,
이미례, 이미숙, 임영란, 이은영, 오의영, 양선례, 박명숙, 허순례, 주정숙, 김낙겸 /
전북·조경란, 박민정, 강금란, 노을, 유대영, 박은숙, 명철, 박현희, 이봉숙, 최성
숙, 한영순, 박미혜, 김민

신외무물 身外無物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로 헤엄치고 물에서 공기
를 얻어 숨을 쉰다. 그러나 물의 고마움을 알지 못
하고 새들은 공기와 바람의 힘으로 하늘을 날아도
고마움을 모른다.

옛날 고사엔 "水魚之交"란 말이 있다. 물고기와
물의 사귀를 뜻하는 말로 아주 가까운 친한 사이
를 말한다. 가까운 사이의 친구를 물고기와 친구
의 관계로 비유했다.

세속의名利와 부귀를 멀리하고 인생무상을 노래
한 선비들, 가을이 되니 傲霜孤節의 한 송이 국화
는 모두를 감동하게 하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흥
취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노란 국화에 서리가 내려 고적하여 고향으로 가
고 싶다. "首丘初心",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을 말한다.

깊어진 초겨울, 정신을 맑게 하고 기운을 왕성하
게 하려면 茶를 즐겨야 그 기운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것 "身外無物"이다. ❷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미연, 동다송, 다산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병해의 훈도를 받고 그들의 다벽(茶壁)을 이은 "금명보정(錦溟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錦溟寶鼎의 禪茶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 찾잔 속 인생을 그리다 ●